

WEBVTT

00:00:11.356 --> 00:00:12.837

안녕하세요?
반갑습니다.

00:00:12.937 --> 00:00:15.332

여러분의 역사 완성자,
류성완입니다.

00:00:15.432 --> 00:00:17.363

너무너무 반갑습니다.
좋습니다.

00:00:17.463 --> 00:00:18.683

이제 8강까지 왔습니다.

00:00:18.783 --> 00:00:21.016

우리 10강이 총 완강이죠?

00:00:21.116 --> 00:00:22.270

이제 3강 남았습니다.

00:00:22.370 --> 00:00:27.092

이제부터 현대파트, 광복 이후 대한민국
정부 수립 그다음에 6.25 전쟁.

00:00:27.192 --> 00:00:28.755

참 혼란했던 시대고요.

00:00:28.855 --> 00:00:30.456

아픔의 역사입니다.

00:00:30.556 --> 00:00:33.151

그렇지만 아픈 만큼 우리가 알아야지

00:00:33.251 --> 00:00:37.191

그러한 역사가 다시
반복되지 않기 때문에

00:00:37.291 --> 00:00:41.453

꼭 배워야 되는 그 역사
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.

00:00:41.553 --> 00:00:42.908

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

00:00:43.008 --> 00:00:47.117

오늘은 일단 광복을 전후해서

00:00:47.217 --> 00:00:53.374

당시에 그런 시대적 상황이 어땠었는지
그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0:53.474 --> 00:00:55.413

전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있었죠?

00:00:55.513 --> 00:01:00.059

1914년부터 18년까지가
1차 세계대전이었고요.

00:01:00.159 --> 00:01:04.375

1939년부터 45년까지가
2차 세계대전이었는데

00:01:04.475 --> 00:01:07.460

41년도에 일본은 2차 세계대전.

00:01:07.560 --> 00:01:10.009

즉 태평양 전쟁, 이때
무슨 사건이 있었죠?

00:01:10.109 --> 00:01:11.307

진주만 공습이 있었죠?

00:01:11.407 --> 00:01:14.551

이제 참전하게 됩니다.

00:01:14.651 --> 00:01:23.626

그래서 독립 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
이 상황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

00:01:23.726 --> 00:01:27.917

당시 열강들이 모여서 회의를
했던 게 있습니다.

00:01:28.017 --> 00:01:29.736

카얄포라고 하거든요.

00:01:29.836 --> 00:01:30.860

총 세 차례 있었습니다.

00:01:30.960 --> 00:01:33.526

카이로, 알타, 포즈담.

00:01:33.626 --> 00:01:35.102

카얄포.

00:01:35.202 --> 00:01:40.904

1943년 11월경에 이집트
카이로에서 모였었고요.

00:01:41.004 --> 00:01:45.400

미, 영, 중이 참여했었고 이 카이로
회담에서 조금 의미를 찾자면

00:01:45.500 --> 00:01:48.347

한국독립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했다.

00:01:48.447 --> 00:01:52.455

그런데 시기는 못 박지 않았고
적당한 시기라고 했고

00:01:52.555 --> 00:01:55.287

2차 세계 대전 끝나면
어떻게 할 거야?

00:01:55.387 --> 00:01:57.420

전후 처리 문제, 이들이
이야기했었고요.

00:01:57.520 --> 00:02:00.880
그리고 나서 알타회담.

00:02:01.027 --> 00:02:03.746
소련에 있는 알타라는 지역에서

00:02:03.846 --> 00:02:08.461
1945년 2월경에
미, 영, 소가 모여서 했고요.

00:02:08.561 --> 00:02:10.496
이때쯤 되면서 이탈리아 항복.

00:02:10.596 --> 00:02:12.348
그다음에 독일의 항복 직전입니다.

00:02:12.448 --> 00:02:15.926
독일이 1945년
5월에 항복하거든요.

00:02:16.026 --> 00:02:21.756
그래서 이들이 항복하게 되면
어떻게 처리해야 되지? 라고 한 겁니다.

00:02:21.856 --> 00:02:24.424
그래서 독일의 전후 처리 문제.

00:02:24.524 --> 00:02:32.928
그다음에 유럽에서는
독일, 소련, 영국.

00:02:33.078 --> 00:02:34.351
이런 나라들이 싸우고 있지만

00:02:34.451 --> 00:02:39.047
태평양을 사이에 두고는 일본과
미국이 대응하고 있잖아요.

00:02:39.147 --> 00:02:41.371
이쪽 거의 다 끝나가니까 소련,

00:02:41.471 --> 00:02:45.058
너희 우리 일본전에는 좀 참여해줘,
라고 미국이 요구해요.

00:02:45.158 --> 00:02:51.355
그래서 소련에게 대일본
참전하도록 요구를 했었고요.

00:02:51.455 --> 00:02:53.642
그리고 나서 독일이 항복합니다.

00:02:53.742 --> 00:02:58.684
그런데 이때 일본은
거의 항복 직전이었고

00:02:58.784 --> 00:03:04.695
우리 천황한테는 전쟁 이거 묻지 마,
라고 조건 재고 있었어요.

00:03:04.795 --> 00:03:07.900

그러다 보니까 독일 포츠담에서
다시 한번 회의가 열립니다.

00:03:08.000 --> 00:03:11.598
일본, 웃기지 마, 조건 없어.
무조건 항복해.

00:03:11.753 --> 00:03:13.813
이놈들이 잘못해놓고!
이렇게 된 거죠.

00:03:13.913 --> 00:03:16.123
그다음에 전범자
처리문제, 이런 것들.

00:03:16.223 --> 00:03:20.601
그다음에 카이로 회담에서
한국, 너네 독립시켜주기로 했잖아.

00:03:20.701 --> 00:03:28.378
확인해줄게, 걱정하지 마, 라고
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있었다.

00:03:29.197 --> 00:03:33.839
이러한 상태에서
우리나라 현대 파트.

00:03:34.796 --> 00:03:38.361
현대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에
대한 전체적인 거 보여드릴게요.

00:03:38.461 --> 00:03:42.019
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 노트
자체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.

00:03:42.119 --> 00:03:43.453
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

00:03:43.553 --> 00:03:45.216
제가 설명드릴게요.

00:03:45.316 --> 00:03:48.579
이걸 제가 끌어오면서
위,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?

00:03:48.679 --> 00:03:50.389
한꺼번에 같이 갈게요.

00:03:50.489 --> 00:03:54.902
보통 우리가 현대파트를 이야기할 때
공화국으로 이야기하죠?

00:03:55.002 --> 00:03:58.093
그런데 1945년부터 48년까지.

00:03:58.268 --> 00:04:03.328
광복 맞고 우리나라 정부 수립할 때까지
이 기간을 미군정기라고 하고요.

00:04:03.353 --> 00:04:08.831
보통은 해방 3년사, 광복

3년사,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.

00:04:08.931 --> 00:04:15.155
그리고 나서 48년부터 60년까지
우리는 이 기간을 1공화국이라고 하고

00:04:15.255 --> 00:04:18.194
당시에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습니다.

00:04:18.294 --> 00:04:24.034
그리고 이 중간은 우리
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죠?

00:04:24.134 --> 00:04:28.714
50년에서 53년까지 6.25
전쟁이 3년간 있었다는 거.

00:04:29.408 --> 00:04:33.059
그 무시무시했었던 이승만
독재가 어떻게 끝나게 되죠?

00:04:33.159 --> 00:04:36.243
4.19 혁명에 의해서
끝나게 되고요.

00:04:36.343 --> 00:04:40.457
그리고 나서 2공화국이 잠깐
1년이 채 되지 않게 있었습니다.

00:04:40.557 --> 00:04:43.782
그런데 61년도에
5.16 군사 정변.

00:04:43.882 --> 00:04:47.158
당시에 군인이었던 박정희가
군사 정변을 일으켜서

00:04:47.258 --> 00:04:51.049
2년간의 박정희 군정기를 갖고요.

00:04:51.149 --> 00:04:54.484
63년부터 72년까지 3공화국.

00:04:54.584 --> 00:04:59.136
정상적인 형태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가
진행되었던 시대가 이 시대죠?

00:04:59.236 --> 00:05:02.947
그리고 나서 72년도에
10월 유신 선포하죠.

00:05:03.047 --> 00:05:08.482
그래서 72년부터 79년까지 유신
시대, 4공화국 시대가 열렸고요.

00:05:08.582 --> 00:05:13.060
이때 박정희가 자신이
믿었던 김재규.

00:05:13.160 --> 00:05:18.174
오른팔이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죽임을

당했던 게 10.26이고요.

00:05:18.274 --> 00:05:20.405
이 혼란을 틈타서 새로운 군부세력.

00:05:20.505 --> 00:05:23.825
전두환이라든가 노태우,
정호영 등으로 대표되는

00:05:23.925 --> 00:05:26.849
신군부 세력이 권력을
잡았던 게 12.12이고요.

00:05:26.949 --> 00:05:31.605
이것을 막기 위해서 광주
지역에서 운동이 벌어지죠.

00:05:31.705 --> 00:05:35.361
이게 80년에 있었던 광주
5.18 민주화운동입니다.

00:05:35.461 --> 00:05:42.611
얼마 전에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
송강호씨 열연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.

00:05:42.711 --> 00:05:46.868
80년부터 88년까지 있게 되는데
여기 87년 6월 민주 항쟁이 있는데

00:05:46.968 --> 00:05:49.908
이게 최근에 영화 뭐가 있습니까?

00:05:50.034 --> 00:05:56.041
1987이라는 영화에서 6월 민주
항쟁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죠?

00:05:56.141 --> 00:06:00.765
그래서 여러분, 제가 볼 때는 이
택시운전사가 100만을 돌파했잖아요.

00:06:00.865 --> 00:06:03.986
그리고 1987도 제가 볼 땐
100만이 될 것 같거든요?

00:06:04.086 --> 00:06:06.383
둘 다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.

00:06:06.483 --> 00:06:10.494
이게 사실은 촛불의 힘이 여기에도
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.

00:06:10.594 --> 00:06:13.762
우리의 근원이 어딜까?

00:06:13.862 --> 00:06:17.211
군부독재에 우리가 맞섰던
광주 5.18 운동과

00:06:17.311 --> 00:06:21.111
6월 민주항쟁,
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.

00:06:21.211 --> 00:06:24.649

이제는 제가 머지않아
4.19에 대해서도.

00:06:24.749 --> 00:06:27.911

이게 우리나라 현대사를
이야기할 때 빅4거든요.

00:06:28.011 --> 00:06:30.079

4.19, 5.18,
6월 민주항쟁.

00:06:30.179 --> 00:06:31.993

이렇게 3개를 이야기하는데요.

00:06:32.093 --> 00:06:39.279

이 빅4가 그 이후에도 다시
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.

00:06:39.379 --> 00:06:41.060

4.19 혁명은 나올 것 같고요.

00:06:41.160 --> 00:06:45.948

아마 여러분이 조금
성인 나이가 될 정도가 되면

00:06:46.048 --> 00:06:53.083

촛불 혁명도 영화가 될 수 있는
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

00:06:53.223 --> 00:06:57.946

그리고 나서 88년부터
93년까지 우리가 노태우.

00:06:58.046 --> 00:07:00.706

93년부터 98년까지 김영삼.

00:07:00.806 --> 00:07:03.014

98년부터 2003년까지 김대중.

00:07:03.114 --> 00:07:05.222

그 이후 노무현, 이명박, 박근혜.

00:07:05.322 --> 00:07:09.610

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
오게 되는 현대사인데요.

00:07:09.710 --> 00:07:16.185

보통 시험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을
전후해서 나올 것 같고요.

00:07:16.285 --> 00:07:19.131

2000년도에 6.15
공동선언이 있죠?

00:07:19.231 --> 00:07:22.776

그 정도에서 우리가 마무리할 수
있을 것 같습니다.

00:07:22.876 --> 00:07:26.661

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07:26.761 --> 00:07:33.531

이제는 그러면 광복을 전후해서
광복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되는

00:07:33.631 --> 00:07:37.086

당시의 민족 지도자들이 누가 있었는지
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7:37.186 --> 00:07:40.958

뛰니 뛰니 해도 우리 백범 김구
선생님, 빼놓을 수 없죠?

00:07:41.058 --> 00:07:46.277

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 대장
김창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.

00:07:46.377 --> 00:07:52.449

백범 김구 선생님의 젊은
시절을 보여주었던 것인데요.

00:07:52.573 --> 00:07:54.597

또 이 영화하면 김구 선생님이

00:07:54.697 --> 00:07:58.425

정말 그렇게 덩치가 좋았습니까,
라고 묻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데요.

00:07:58.525 --> 00:07:59.582

좋았습니다.

00:07:59.682 --> 00:08:06.570

실제로 김구 선생님이 젊었을 때는
무공이 상당해요.

00:08:06.670 --> 00:08:08.710

거기서는 맨손으로
때려잡았다고 하는데

00:08:08.810 --> 00:08:16.240

다른 책에서는 일본 낭인을
칼로서 같이 제압했다고 할 정도로

00:08:16.340 --> 00:08:18.175

덩치도 있는 데다 학식도 있었고

00:08:18.307 --> 00:08:22.335

무력 역시 뛰어났었던 바로 그
인물이 김구 선생님이었고

00:08:22.435 --> 00:08:27.763

그가 30년, 40년 넘게 우리
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

00:08:27.863 --> 00:08:31.252

대한민국 임시 정부의
주석 자리로서 있었죠.

00:08:31.352 --> 00:08:34.591

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주석이 아닌.

00:08:34.728 --> 00:08:38.562

그런데 안타깝게도 광복 이후에
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돼요.

00:08:38.662 --> 00:08:41.220

그 이후 신탁 통치 반대
운동을 주도했었고요.

00:08:41.320 --> 00:08:47.412

남북 협상 추진하면서 5.10
총선거에 불참하는 모습이 있었어요.

00:08:47.512 --> 00:08:51.465

이런 단어들 아마 생소하실 텐데 오늘
수업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.

00:08:51.565 --> 00:08:54.518

그 이후에 인물이
바로 김규식입니다.

00:08:54.618 --> 00:09:00.399

김구 선생님이 주석이라면 44년도부터
주석, 부주석 체제할 때 그 부주석이죠.

00:09:00.499 --> 00:09:03.173

뿐만 아니라 파리강화회의에

00:09:03.273 --> 00:09:05.793

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
대표로서 파견되기도 했었고요.

00:09:05.893 --> 00:09:07.251

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.

00:09:07.351 --> 00:09:10.607

좌우 합작 운동을
주도하기도 했었습니다.

00:09:10.707 --> 00:09:16.208

그다음에 남조선 과도 입법
의원 의장을 역임했었고

00:09:16.308 --> 00:09:17.463

남북 협상 추진했었다.

00:09:17.563 --> 00:09:21.915

남북 협상은 김구와 김규식
선생님이 같이 추진했었고요.

00:09:22.015 --> 00:09:25.985

5.10 총선거 불참했었다는
거 봐주셨으면 좋겠고

00:09:26.085 --> 00:09:28.451

그다음에 여기 몽양
여운형 선생님입니다.

00:09:28.551 --> 00:09:30.065

조선 건국 준비위원회.

00:09:30.165 --> 00:09:35.114

그러니까 김구, 김규식, 이승만
등이 해외에서 광복을 맞았다면

00:09:35.214 --> 00:09:41.636

유일하게 국내에서 광복을 준비했었던
인물이 바로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죠?

00:09:41.736 --> 00:09:43.783

조선 건국 준비
위원회를 주도했구요.

00:09:43.883 --> 00:09:48.310

조선 인민 공화국 수립도 했었고 신탁
통치 반대 운동, 좌우 합작 운동.

00:09:48.410 --> 00:09:53.134

좌우 합작 운동은 대표적인 인물이
바로 이 김규식과 여운형입니다.

00:09:53.234 --> 00:09:56.334

그래서 이렇게는 남북
협상 같이 갔었구요.

00:09:56.434 --> 00:10:02.214

이렇게는 좌우 합작 운동을
같이 펼치기도 했었다는 거.

00:10:02.314 --> 00:10:03.493

그다음에 이승만이죠.

00:10:03.593 --> 00:10:06.894

이승만은 독립 축성 중앙
협의회 총재를 역임했었고

00:10:06.994 --> 00:10:10.193

반공 반소 운동 전개했었고
신탁 통치 반대.

00:10:10.293 --> 00:10:18.061

여기에 있는 대부분 인물은 신탁 통치에
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강했구요.

00:10:18.161 --> 00:10:19.952

남한 단독정부론 주장.

00:10:20.052 --> 00:10:25.383

남한 단독 정부론을 이룸하여
우리는 정읍 발언이라고 합니다.

00:10:25.483 --> 00:10:27.954

정읍지역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

00:10:28.054 --> 00:10:30.481

정부를 세울 수 있다는
정읍 발언도 하게 되고요.

00:10:30.581 --> 00:10:35.393

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도 했었다는
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10:35.493 --> 00:10:40.343

이거는 제가 필기를 하면서
같이 한번 정리해본 거예요.

00:10:43.809 --> 00:10:46.985

여기 보시면 성향적으로
제가 구분해본 겁니다.

00:10:47.085 --> 00:10:50.911

이게 좌익성향, 여기는
우익성향이죠?

00:10:51.011 --> 00:10:54.661

좌익과 우익을 이야기할 때
약간 급진적인.

00:10:54.761 --> 00:10:56.804

그러니까 사회주의
계열이 저쪽이고요.

00:10:56.904 --> 00:11:01.193

이쪽은 사회주의에
반대하는 그러한 개념인데

00:11:01.293 --> 00:11:05.839

좌익과 우익은 원래
프랑스 혁명에서

00:11:05.939 --> 00:11:09.503

좌쪽에 있던 사람들이
보통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았대요.

00:11:09.603 --> 00:11:12.201

그래서 좌익이라고
하면 대개 진보적인,

00:11:12.301 --> 00:11:14.348

급진적인 이런 개혁을
주장한 사람들이고

00:11:14.448 --> 00:11:16.309

당시에 우쪽에 있던 사람들이

00:11:16.409 --> 00:11:21.774

전통적인 보수를 지켜가는
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하게 되죠.

00:11:21.874 --> 00:11:31.524

대표적인 좌익으로는 당시 조선공산당의
최고 당수였었던 박헌영이 있었고요.

00:11:31.624 --> 00:11:34.553

사실은 여운형 선생님이 이쪽까지는
아니고 여기가 바로 중도라면

00:11:34.653 --> 00:11:37.914

한 이 정도 있으신 분인데
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.

00:11:38.014 --> 00:11:41.403

그래서 여기가 여운형 선생.

00:11:41.503 --> 00:11:48.246

그다음에 중도로 빠져서 여기가
김규식 선생 정도가 됐겠죠.

00:11:48.346 --> 00:11:52.491

그다음에 여기 김구 선생님은
사실 성향으로는 이쪽인데

00:11:52.591 --> 00:11:55.701

이승만과 김구를 같이
놓기는 좀 그렇긴 한데

00:11:55.801 --> 00:11:58.332

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
이념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.

00:11:58.432 --> 00:12:01.790

그런데 중요한 건
여러분, 그게 있어요.

00:12:01.890 --> 00:12:03.522

우리가 분단되잖아요.

00:12:03.653 --> 00:12:07.230

빠져나가려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.

00:12:07.330 --> 00:12:09.429

하나로 모으려고 했던
힘이 있었습시다.

00:12:09.529 --> 00:12:13.635

그러니까 당시에 서구 열강들은
우리나라를 찢어놓으려고 했었어요.

00:12:13.735 --> 00:12:23.716

그런데 이 가운데로 보이는 힘이 조금
더 됐으면, 구심력이 조금 더 됐으면

00:12:23.816 --> 00:12:25.825

우리나라가 지금도 분단을
안 하고 있을 텐데

00:12:25.925 --> 00:12:31.151

사실은 참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이유로
이렇게 좌우로 나누어지게 되었고

00:12:31.251 --> 00:12:35.366

그게 지금까지의 역사로도
진행되고 있다는 데에서

00:12:35.466 --> 00:12:39.328

참 한없는 안타까움을
느끼게 됩니다.

00:12:39.428 --> 00:12:45.774

여기 보시면 조선공산당 박헌영 같은
경우는 제주 4.3 사건이라든가

00:12:45.874 --> 00:12:49.503

여수, 순천 10.19

사건에 기여했었고요.

00:12:49.603 --> 00:12:56.938
그다음에 몽양 여운형 선생 같은
경우는 조선인민당에 있었어요.

00:12:57.080 --> 00:13:00.603
여운형과 김규식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
나와야 되는 운동 뭐 있었냐?

00:13:00.703 --> 00:13:03.419
좌우합작 운동.
이거 꼭 기억해두셔야 됩니다.

00:13:03.519 --> 00:13:10.120
그다음에 김구나 김성수, 이승만 등
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운동도 있었고

00:13:10.220 --> 00:13:12.674
김구와 김규식을 잇는 건
뭐가 있었냐?

00:13:12.774 --> 00:13:19.646
그렇죠, 남북협상을 추진했었다는
거에 대해서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13:19.746 --> 00:13:24.567
그다음에 이승만 같은 경우는 단독정부
수립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고

00:13:24.667 --> 00:13:27.556
그 최초 주장이 바로
정읍 발언이었다는 거.

00:13:27.656 --> 00:13:29.276
지금은 여러분이 처음 듣다 보니까

00:13:29.376 --> 00:13:31.755
이게 무슨 말인지 잘
모를 수도 있을 텐데요.

00:13:31.855 --> 00:13:33.863
조금 듣다 보면 더
확인될 것 같습니다.

00:13:33.984 --> 00:13:35.239
한번 가볼게요.

00:13:35.339 --> 00:13:42.339
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꿈에
그리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

00:13:43.563 --> 00:13:47.787
당시 국내에서 광복을 준비하고
있었던 몽양 여운형 선생님은

00:13:47.887 --> 00:13:52.035
조선 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을
이제는 무엇으로 확대시킵니까?

00:13:52.135 --> 00:13:55.425

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확대시킵니다.

00:13:55.525 --> 00:13:57.280
이게 몽양 여운형 선생님이죠.

00:13:57.380 --> 00:14:02.162
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했어요.

00:14:02.262 --> 00:14:04.715
여러분, 생각해 보세요.

00:14:04.815 --> 00:14:08.843
일본인이 있고 일본인이
항복을 선언해 버렸을 때

00:14:08.943 --> 00:14:10.746
당시 국내 상황은 어떻게
됐을 것 같아요?

00:14:10.846 --> 00:14:12.591
우리한테는 총이 없죠,
무기가 없죠?

00:14:12.691 --> 00:14:16.381
일본인들의 수는 적지만
총이 있습니다.

00:14:16.481 --> 00:14:22.664
그리고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인해서 당시에
일본인들의 최대 목표가 뭐였냐면

00:14:22.811 --> 00:14:27.479
우리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을 안전하게
일본으로 데려가는 거였어요.

00:14:27.579 --> 00:14:30.478
그런데 우리 민중들 30년
넘게 당한 울분이 있죠?

00:14:30.578 --> 00:14:33.892
가서 저항하다 보면 이게 무력충돌이
일어날 게 뻔했거든요.

00:14:33.992 --> 00:14:40.118
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여운형
선생님이 그 협상을 대신합니다.

00:14:40.218 --> 00:14:48.401
대한민국 임시 정부든 뭐든 우리 정부로서
일단 안전하게 일본인들 너희 가라.

00:14:48.501 --> 00:14:52.236
그러고 나서 우리 치안을
완벽하게 유지하는데요.

00:14:52.336 --> 00:14:57.234
광복한 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전국적인
치안 조직이 만들어지게 돼요.

00:14:57.334 --> 00:15:01.149
상당히 우리나라는 어이없이 그냥 아무런

준비 없이 광복을 맞은 것 같지만

00:15:01.249 --> 00:15:05.064

생각보다 상당한 조직력을
갖추고 있었습니다.

00:15:05.164 --> 00:15:08.989

그런데 문제는 내부적 문제보다
외부적 문제도 있었어요.

00:15:09.089 --> 00:15:11.809

일단 또 하나, 여운형
선생님과 김구 선생님이

00:15:11.909 --> 00:15:13.989

그렇게 유대 관계가
깊지는 않습니다.

00:15:14.089 --> 00:15:15.926

기존에 만났던 적은 있었겠지만.

00:15:16.026 --> 00:15:17.515

일단 김구 선생님 자체는

00:15:17.615 --> 00:15:21.895

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주석으로서
주장했을 것이고요.

00:15:21.995 --> 00:15:26.310

여운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
간에 국내에서 광복을 맞이하면서

00:15:26.410 --> 00:15:29.905

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게 나다,
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?

00:15:30.005 --> 00:15:34.146

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인
이승만 같은 경우는

00:15:34.246 --> 00:15:38.218

당시 우리나라에 미군정이
들어섰기 때문에 미국 유학파죠?

00:15:38.318 --> 00:15:43.548

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
대한 이권이 또 있었습니다.

00:15:43.648 --> 00:15:49.521

그런 상황에서 9월에 미군이
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.

00:15:49.621 --> 00:15:52.467

그러니까 이 미군이 들어와서
제일 고민했던 건 뭐냐면

00:15:52.567 --> 00:15:56.178

이미 8월에 소련군이
38도선에 있었거든요.

00:15:56.278 --> 00:16:01.208

그러니까 이때 상황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.

00:16:03.017 --> 00:16:05.978
참 어이없으면서도 안타까운 건
이 당시의 우리나라 정세입니다.

00:16:06.078 --> 00:16:06.834
생각해보세요.

00:16:06.934 --> 00:16:08.256
우리나라가 이때 전쟁을 벌였습니까?

00:16:08.356 --> 00:16:11.289
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입니까?
아무것도 아니죠?

00:16:11.389 --> 00:16:15.800
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분단되었죠?

00:16:15.900 --> 00:16:18.827
독일이 분단된 건 그럴 수
있죠, 그들은 전범국이니깐.

00:16:18.927 --> 00:16:22.951
일본을 갈라야 되는데
일본을 가르기에는

00:16:23.051 --> 00:16:25.089
일본과 미국이 너무 많이 싸웠어요.

00:16:25.189 --> 00:16:29.489
그래서 미국은 전쟁이 끝난 이후

00:16:29.589 --> 00:16:35.507
이념적인 대립을 할 것을
대비하기 위해서 반도.

00:16:35.660 --> 00:16:39.588
대륙에다 자신들의 전진 기지를
하나 가지고 싶어 했어요.

00:16:39.688 --> 00:16:41.311
그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.

00:16:41.411 --> 00:16:46.401
그런데 이때쯤 누가? 소련이 뒤
늦게 일본전에 참전해오게 되면서

00:16:46.501 --> 00:16:49.252
광복 전에 이미 한반도에
소련군이 들어와요.

00:16:49.352 --> 00:16:50.530
그러니까 미군이 이야기하죠.

00:16:50.630 --> 00:16:53.996
야, 너희 인제 그만
내려와, 이렇게 된 것이죠.

00:16:54.096 --> 00:16:58.229

왜 그러냐면 이때 미군은 오키나와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.

00:16:58.329 --> 00:17:00.901

그런데 이때 소련이 생각해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.

00:17:01.001 --> 00:17:02.417

너희가 거의 다 싸웠는데

00:17:02.517 --> 00:17:05.037

우리가 마지막에 와서 이 한반도를 다 차지하긴 그렇지.

00:17:05.165 --> 00:17:10.103

알았어, 하고 딱 38도선을 긋고 38도선까지만 소련군이 내려옵니다.

00:17:10.203 --> 00:17:13.292

그리고 나서 약 한 달 뒤에 미군이 들어와요.

00:17:13.392 --> 00:17:14.496

이 상태입니다.

00:17:14.596 --> 00:17:17.978

그러면 미군이 이때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?

00:17:18.078 --> 00:17:19.740

체제 안정입니다.

00:17:19.840 --> 00:17:21.575

이때 광복 맞고 친일파.

00:17:21.675 --> 00:17:24.922

당시의 경찰세력들 공무원 세력들 다 도망갔어요.

00:17:25.022 --> 00:17:27.307

이제 나 죽었다, 내 세상 끝났다, 하고 갔는데

00:17:27.407 --> 00:17:29.879

이때 미군이 오더니 뭐라고 합니까?

00:17:29.979 --> 00:17:31.920

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.

00:17:32.020 --> 00:17:34.333

우리는 일 할 수 있는 사람 원합니다.

00:17:34.433 --> 00:17:36.766

친일 경찰들 우리는 상관없습니다.

00:17:36.866 --> 00:17:40.502

우리는 민족적 관심 없습니다, 오십시오, 라고 해요.

00:17:40.602 --> 00:17:45.465

미군정이 들어섰던 게 우리나라가 친일청산이
힘들어진 첫 번째 이유입니다.

00:17:45.565 --> 00:17:47.145
친일파 청산에 소극적이었고요.

00:17:47.245 --> 00:17:51.099
지금에 있는 체제를 조용히
유지시키는 데 원했어.

00:17:51.199 --> 00:17:56.778
그 상태에서 당시의 친일파로 비판을
받는 김성수 같은 사람들이

00:17:56.878 --> 00:18:00.899
당시 우리나라 지주 계층으로
인해서 한국민주당.

00:18:00.999 --> 00:18:03.385
한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죠.

00:18:03.485 --> 00:18:07.023
그 상태에서 10월에
이승만이 귀국하고요.

00:18:07.123 --> 00:18:09.591
그때 아주 미군에서는
대대적인 행사를 해주죠?

00:18:09.691 --> 00:18:12.638
그러면 이때까지 김구 선생님은
왜 안 들어오셨어요?

00:18:12.738 --> 00:18:14.366
끝없이 이야기하죠.

00:18:14.466 --> 00:18:19.708
야, 내가 대우받고 싶어서
한 게 아니라 우리가 30년 넘게

00:18:19.808 --> 00:18:24.721
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
이끌어왔는데 우리의 정통성을 인정해줘.

00:18:24.821 --> 00:18:26.227
나 개인 자격으로 갈 수 없어.

00:18:26.327 --> 00:18:29.393
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나 지금
국내에 들어갈 거야, 라고 하는데

00:18:29.493 --> 00:18:32.051
미군정이 그걸 받지 않아요.

00:18:32.151 --> 00:18:39.871
9월, 10월이 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이
없자 개인 자격으로 입국합니다.

00:18:39.971 --> 00:18:41.220
이게 참 가슴 아파요.

00:18:41.320 --> 00:18:43.224
개인 자격으로 입국하게 되면서

00:18:43.324 --> 00:18:47.498
그 이후 우리나라가
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.

00:18:47.598 --> 00:18:51.231
이런 상태에서 1945년
12월 모스크바에서

00:18:51.331 --> 00:18:54.966
한반도 문제를 어떻게
할지에 대해서 3개국.

00:18:55.066 --> 00:19:01.527
미국, 소련, 영국의 외무부 장관들이
모여서 3국 외상 회의라는 걸 엮니다.

00:19:01.627 --> 00:19:02.911
여기서 3개를 결정해요.

00:19:03.011 --> 00:19:07.535
첫 번째, 이 한반도에
임시정부 수립하자, 콜!

00:19:07.635 --> 00:19:12.729
두 번째, 미, 소
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, 콜!

00:19:12.829 --> 00:19:17.248
세 번째, 최고 5년이긴 하지만

00:19:17.348 --> 00:19:22.582
신탁통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?
라는 말이 나오자 이게 큰일 나요.

00:19:22.682 --> 00:19:24.121
신탁통치가 무슨 소리입니까?

00:19:24.221 --> 00:19:25.511
식민통치예요.

00:19:25.611 --> 00:19:28.853
우리나라가 일제 35년 넘게
식민통치를 받았는데 뭐?

00:19:28.953 --> 00:19:31.133
아무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

00:19:31.233 --> 00:19:33.406
미국과 소련한테 우리가
신탁통치를 받는다고?

00:19:33.506 --> 00:19:35.705
이거 있을 수 없지,
라고 하게 되면서

00:19:35.805 --> 00:19:39.721
처음에는 다 반대를 해요.

00:19:40.586 --> 00:19:47.877
이 신탁통치안이 나오자마자 전부
다 반대하는 입장을 취합니다.

00:19:47.977 --> 00:19:50.820
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

00:19:50.920 --> 00:19:55.931
소련 쪽에서 가까운 쪽인
좌익단체한테 지령을 내려요.

00:19:56.031 --> 00:19:58.967
야, 이거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고

00:19:59.067 --> 00:20:03.762
우리가 사회주의 혁명 이끌고 가려면
사실 이걸 나쁘지 않아, 라고 하면서

00:20:03.862 --> 00:20:09.927
이 좌익 진영은 그 이후에 신탁통치를
지지하는 쪽으로 바뀌어요.

00:20:10.064 --> 00:20:17.746
그리고 그 외, 우익단체든
대부분의 단체는

00:20:17.846 --> 00:20:22.930
이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반탁운동에
들어가게 됩니다.

00:20:23.030 --> 00:20:29.090
문제는 이들의 대립이
극에 달하게 됩니다.

00:20:29.190 --> 00:20:30.001
무슨 이야기예요?

00:20:30.101 --> 00:20:33.702
이때 친일파들이 다
여기로 숨어들어가요.

00:20:33.802 --> 00:20:34.841
야, 미안해, 나 친일했어.

00:20:34.941 --> 00:20:40.931
그런데 나 지금 또 식민통치하자는 저런
좌익 놈들이랑은 달라, 라고 하면서

00:20:41.031 --> 00:20:43.722
이들이 여기에 숨어들어오는데
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.

00:20:43.822 --> 00:20:45.740
이들의 대립이 아주 극에 달해요.

00:20:45.840 --> 00:20:50.249
반대파들에 대해 거리에서
시시때때로 테러를 하고

00:20:50.349 --> 00:20:56.218
그러면서 이 내부적인 갈등이

너무나 극에 달하게 됩니다.

00:20:56.318 --> 00:20:58.429
지지해야 돼, 이게 오히려
우리나라를 위한 길일지도 몰라!

00:20:58.529 --> 00:21:00.325
웃기지 마!
또 신탁통치를 해야 된다고?

00:21:00.425 --> 00:21:02.144
이들이 엄청나게 싸우게 됩니다.

00:21:02.244 --> 00:21:05.969
이러면서 친일파 처벌
문제에 대해서는

00:21:06.069 --> 00:21:09.183
조금 그 뒤에 넘어가게 되는
그런 모습이 있었어요.

00:21:09.283 --> 00:21:13.817
여기 보시면 이게 모스크바 3국
외상 회의의 결정안입니다.

00:21:13.917 --> 00:21:17.767
1. 조선을 독립 국가로 재건하여

00:21:17.867 --> 00:21:20.796
민주주의적 원칙하에
발전시키는 동시에

00:21:20.896 --> 00:21:25.176
일본의 가혹한 정치의 잔재를
급속히 청소하기 위하여

00:21:25.276 --> 00:21:29.372
조선 민주주의 임시
정부를 수립한다.

00:21:29.504 --> 00:21:32.772
2. 조선의 임시
정부 수립을 실현하며

00:21:32.872 --> 00:21:37.724
이에 대한 방침을 강구하기 위하여
남조선의 미국군 사령부 대표와

00:21:37.824 --> 00:21:42.155
북조선의 소련군 사령부 대표로서
공동 위원회를 설치한다.

00:21:42.255 --> 00:21:43.385
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.

00:21:43.485 --> 00:21:45.098
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죠.

00:21:45.198 --> 00:21:49.185
3. 공동 위원회 제안은
조선 임시 정부와 타협한 후

00:21:49.285 --> 00:21:52.386

미, 소, 영, 중
정부에 제출하여.

00:21:52.486 --> 00:21:53.774

이게 중요했죠.

00:21:53.874 --> 00:21:59.802

최고 5년간의 4개국 조선 신탁
통치에 관한 협정을 할 것이다.

00:21:59.902 --> 00:22:02.874

아무리 길어봤자 5년이라는
기한은 정해져 있죠.

00:22:02.974 --> 00:22:06.897

그렇지만 이 4개국에 의해서
신탁 통치에 관한다는데

00:22:06.997 --> 00:22:11.326

이게 당시의 민족적 감정에
맞지 않는 거예요.

00:22:11.426 --> 00:22:13.929

30년 넘게 우리가
일제한테 식민통치 당했는데

00:22:14.029 --> 00:22:15.938

또 식민통치야? 라고 하는 것이죠.

00:22:16.038 --> 00:22:18.302

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이
신탁 통치 반대 운동과

00:22:18.402 --> 00:22:20.275

신탁 통치 결정에 대한 지지.

00:22:20.375 --> 00:22:23.923

이들의 싸움이 아주
극에 달하게 됩니다.

00:22:24.023 --> 00:22:27.087

이런 상태에서 국내는
많이 분열되어 있었죠?

00:22:27.187 --> 00:22:33.558

1946년 3월경에 1차
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.

00:22:33.658 --> 00:22:37.563

그런데 이때 미국과 소련이
회의를 주로 주최했겠죠?

00:22:37.663 --> 00:22:42.131

그런데 이때 우리가 미, 소 공동회를
열어서 앞으로 정부를 구성할 때

00:22:42.231 --> 00:22:46.680

어디까지의 단체를 넣을 것이냐를
놓고 이들이 대립하게 됩니다.

00:22:46.780 --> 00:22:48.266
미국은 모든 단체.

00:22:48.366 --> 00:22:51.675
그러니까 좌익단체, 우익단체
모든 것을 넣을 걸 주장해요.

00:22:51.775 --> 00:22:55.223
그에 비해서 소련은
야, 웃기지 마.

00:22:55.323 --> 00:22:58.093
우리가 미, 소 공동위원회
왜 하고 있어?

00:22:58.193 --> 00:23:00.316
모스크바 3국 외상
회의 때문에 하는 건데

00:23:00.416 --> 00:23:03.366
그것을 따르지 않는 우익 단체를 왜 넣어?
라고 하면서

00:23:03.466 --> 00:23:07.163
좌익단체만을 넣을 것을
주장하게 되죠.

00:23:07.263 --> 00:23:11.294
이들의 대립으로 인해서 이게
한 2달 정도 가다가 결렬되어버려요.

00:23:11.394 --> 00:23:13.480
그러니까 다시 미, 소
공동회를 열어야 되는데

00:23:13.630 --> 00:23:15.959
이거 할 수 있을까?
이런 고민에 빠졌다가

00:23:16.059 --> 00:23:23.900
46년 6월경에 당시 정읍을 방문했었던
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하게 됩니다.

00:23:24.000 --> 00:23:29.987
이게 남한만이라도 단속 정부를
수립하자, 라는 것을 결정하는.

00:23:30.087 --> 00:23:35.013
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
단독정부 수립을 최초로 주장하게 되죠.

00:23:35.113 --> 00:23:37.136
이게 말이 좋아 단독정부 수립이지

00:23:37.236 --> 00:23:39.784
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나올 수도
있었던 것입니까?

00:23:39.884 --> 00:23:43.216
분단의 시작을 이야기한 것이죠.

00:23:43.316 --> 00:23:45.950

이러한 발언이 나오게
되자 큰일 난 거예요.

00:23:46.050 --> 00:23:47.835
그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들 있죠?

00:23:47.935 --> 00:23:51.282
여운형이라든가 김규식 등이
야, 이거 큰일 났다.

00:23:51.382 --> 00:23:52.381
이거 안 되겠다.

00:23:52.481 --> 00:23:54.434
좌우합작 운동 했다가
우리 큰일 난다.

00:23:54.534 --> 00:23:59.687
여운형과 김규식을
중도좌파, 중도우파라고 하거든요.

00:23:59.787 --> 00:24:02.937
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
좌와 우가 하나로 합쳐야 돼.

00:24:03.037 --> 00:24:06.236
이거 잘못하다가 우리나라
분단되겠어, 라고 말한 것이죠.

00:24:06.336 --> 00:24:09.466
그러고 나서 좌우합작
7원칙을 발표하고요.

00:24:09.566 --> 00:24:12.176
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이라든가
미소 공위 속개라든가

00:24:12.276 --> 00:24:15.607
친일파 처단이라든가 토지개혁,
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는데

00:24:15.707 --> 00:24:19.926
사실은 이 좌우합작 운동을 초기에
미국에서는 되게 좋아합니다.

00:24:20.026 --> 00:24:22.159
어느 정도 지지를
해줄 것을 약속해요.

00:24:22.259 --> 00:24:24.969
그런데 미군정이 지지를 철회해요.

00:24:25.069 --> 00:24:29.541
왜 그랬냐면 이때 49년 말에
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루먼이었는데

00:24:29.641 --> 00:24:31.363
트루먼이 독트린을 발표해요.

00:24:31.463 --> 00:24:33.226
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발표하는데

00:24:33.326 --> 00:24:39.918
이제는 소련의 사회주의에 반대하는
그러한 노선으로 가게 됩니다.

00:24:40.018 --> 00:24:42.412
우리는 그것을 트루먼
독트린이라고 하게 되는데

00:24:42.512 --> 00:24:47.339
이것으로 인해서 미군정이 좌우합작
운동의 지지를 철회해버려요.

00:24:47.439 --> 00:24:51.277
뿐만 아니라 이 좌우합작 운동의
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던

00:24:51.377 --> 00:24:53.742
여운형 선생이 암살을 당하십니다.

00:24:53.842 --> 00:24:56.827
여러분,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
제 책, 불멸의 책이죠?

00:24:56.927 --> 00:25:01.018
청춘의 완터뷰.

00:25:01.171 --> 00:25:04.632
그 책에 또 한 명의 인물이
바로 몽양 여운형 선생님입니다.

00:25:04.732 --> 00:25:06.340
제가 생각할 때 몽양 여운형
선생님 되게 멋지신 분이예요.

00:25:06.440 --> 00:25:11.111
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위낙에
반대진영에서 암살이 나고 좌우합작 운동.

00:25:11.211 --> 00:25:13.751
여러분, 지금보면 정말로
좋은 운동 아닙니까?

00:25:13.851 --> 00:25:15.823
우리나라 분단 막자는 거잖아요.

00:25:15.923 --> 00:25:18.030
그런데 이거 할 때
나라 팔아먹는다고 하고

00:25:18.130 --> 00:25:21.010
반대세력들, 극우단체나
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.

00:25:21.110 --> 00:25:24.769
그래서 위낙에 테러를
많이 하려고 하니까.

00:25:27.116 --> 00:25:28.494

그 이야기 먼저 합시다.

00:25:28.594 --> 00:25:33.492

광복을 맞자마자 사람들이
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.

00:25:33.592 --> 00:25:37.746

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, 선생님?
이라고 광복날 여운형 선생님을 찾아가니까

00:25:37.846 --> 00:25:42.709

여운형 선생님이 지금의 휘문고등학교
강당에 딱 올라가서 사람들을 짝 모읍니다.

00:25:42.809 --> 00:25:47.353

그 자리에서 연설하는데
우리나라 최고의 연설가였대요.

00:25:47.453 --> 00:25:53.296

대본도 없이 앞으로 우리 민족은 더더욱
더 힘을 합치고 나가야지 가능하다.

00:25:53.396 --> 00:25:57.374

상황은 녹록지 않겠지만 우리
함께 나갑시다! 라고 이야기하는데

00:25:57.474 --> 00:25:59.766

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서
울면서 박수를 칩니다.

00:25:59.866 --> 00:26:05.848

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뽑은
우리나라 현대사에 3대 웅변가.

00:26:05.948 --> 00:26:09.145

1, 여운형, 2, 김대중
그다음에 노무현.

00:26:09.245 --> 00:26:10.550

이렇게 3명입니다.

00:26:10.650 --> 00:26:12.621

그중에서도 시작이 바로
이 여운형 선생님인데요.

00:26:12.721 --> 00:26:14.561

그렇게 연설을 잘했대요.

00:26:14.661 --> 00:26:19.262

그러고 나서 그가 운동을
펼쳐나가자 테러가 많았대요.

00:26:19.362 --> 00:26:22.342

이 여운형 선생님의
자료를 찾아보니까

00:26:22.442 --> 00:26:24.034

우리나라 기록을 가지고 계세요.

00:26:24.134 --> 00:26:28.574

일단 공식적인 테러만 광복

이후 10번을 당하세요.

00:26:28.674 --> 00:26:31.099

그러니까 제자들이나
그를 따랐던 추종자들이

00:26:31.199 --> 00:26:33.899

선생님, 이러시다 큰일 나십니다.

00:26:33.999 --> 00:26:35.149

두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.

00:26:35.249 --> 00:26:37.938

첫째, 일본으로 몸을 피하시죠,

00:26:38.038 --> 00:26:41.317

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, 라고
하자 여운형 선생님이 껄껄 웃습니다.

00:26:41.417 --> 00:26:43.215

야, 나 혁명가야.

00:26:43.315 --> 00:26:45.969

혁명가인데 일본으로 지금 가라고?
이게 말이 되니?

00:26:46.069 --> 00:26:46.956

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.

00:26:47.056 --> 00:26:52.526

그러니까 그러면 보디가드라도,
신변의 위협을 너무 받고 계시니까

00:26:52.626 --> 00:26:58.893

제가 보디가드를 세우겠습니다,
라고 했더니 됐다, 그러지 마라.

00:26:58.993 --> 00:27:01.578

나는 혁명가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.

00:27:01.678 --> 00:27:06.115

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
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가.

00:27:06.215 --> 00:27:08.826

분단되지 않은 조국을
만들기 위해서 죽을 텐데

00:27:08.926 --> 00:27:11.235

그러려면 사람들 한 명,
한 명 만나서 설득하고

00:27:11.335 --> 00:27:16.643

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
그 보디가드가 오게 되면서

00:27:16.743 --> 00:27:18.826

내가 그 민중으로부터
떨어지지 않겠냐.

00:27:18.926 --> 00:27:23.860

혁명이 민중으로부터 떨어져서야
어떻게 혁명을 할 수 있겠냐.

00:27:23.960 --> 00:27:24.973
그리고 걱정하지 마라.

00:27:25.073 --> 00:27:30.085
혁명의 죽음은
침상이 아니라 길거리여야 된다.

00:27:30.185 --> 00:27:31.046
이게 뭐니까?

00:27:31.146 --> 00:27:36.125
난 테러를 당하더라도 비굴하게
숨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

00:27:36.225 --> 00:27:39.951
사람들을 만나면서 당당하게
죽음을 가져가겠다고 했는데

00:27:40.051 --> 00:27:41.864
그러고 나서 공식적으로
10번을 당해요.

00:27:41.964 --> 00:27:46.030
어느 날 밖에 나갔다 왔더니
집 앞에 폭탄이 터져있고요.

00:27:46.130 --> 00:27:48.967
외출하고 왔더니 침상에도
던져져 있고요.

00:27:49.067 --> 00:27:52.667
뭘 하나 까봤는데 그게 폭탄이
안 터져서 산 적도 있고요.

00:27:52.767 --> 00:27:57.642
어느 날은 잡혀서 산에 가서
죽으려고 하는데 절벽으로 몰래...

00:27:57.742 --> 00:27:59.199
운동을 되게 잘하셨대요.

00:27:59.299 --> 00:28:01.320
그래서 피해 나와서
산 적도 있고요.

00:28:01.420 --> 00:28:04.772
되게 위험천만하게 살아가다가
혜화동 로터리에서

00:28:04.872 --> 00:28:09.819
효창공원으로 향하시던 여운형
선생님에게 당시의 우익단체,

00:28:09.919 --> 00:28:13.856
극우단체의 청년이 지프차에 올라타고

00:28:13.956 --> 00:28:19.668
뒤에서 총을 가격해서 암살한

사건이 바로 이 여운형의 암살.

00:28:19.822 --> 00:28:22.702
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분단이
시작되었다, 라고 해도

00:28:22.802 --> 00:28:25.383
제가 볼 때는 과언은
아닌 것 같습니다.

00:28:25.483 --> 00:28:28.735
그 상태에서 좌우 합작 7원칙.

00:28:28.835 --> 00:28:35.322
여러분, 이거까지 학교 선생님이
강조하셨으면 알아보시고요.

00:28:35.477 --> 00:28:37.994
교과서에 있을 테니까
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

00:28:38.094 --> 00:28:39.773
그 이후 이렇게 됩니다.

00:28:39.873 --> 00:28:44.400
47년 말에 2차 미소공위가 열렸지만
별다른 성과 없이 결렬됩니다.

00:28:44.500 --> 00:28:45.941
그 상태에서 이 문제가

00:28:46.041 --> 00:28:51.518
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 대한
결정도 잘 안 따르고 하니까

00:28:51.618 --> 00:28:54.297
UN 총회에서, 47년 11월입니다.

00:28:54.397 --> 00:28:56.206
야, 안 되겠어.

00:28:56.306 --> 00:29:02.882
남한, 북한 너희 인구 비례해서
남북한 총선거 실시해! 라고 해요.

00:29:02.982 --> 00:29:04.586
그러니까 선거하려면
어떻게 해야 됩니까?

00:29:04.686 --> 00:29:08.032
UN에서 이것을 할 수
있는지에 대한 감시단 내지는

00:29:08.132 --> 00:29:10.924
규정을 정할 사람들이
와야 될 거 아닙니까?

00:29:11.024 --> 00:29:14.227
그들은 우리는 UN 한국
임시위원단이라고 하는데

00:29:14.327 --> 00:29:17.861
이들이 왔을 때 북쪽이 거부합니다.

00:29:17.961 --> 00:29:20.225
북쪽이 거부했었던 이유는 간단해요.

00:29:20.325 --> 00:29:25.440
총선거를 실시하면 당시에 남한의 인구가 2배가량 많았거든요.

00:29:25.540 --> 00:29:28.910
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당시 북은 거부하게 되고요.

00:29:29.010 --> 00:29:31.621
이미 그 당시에 북은 김일성이 어느 정도

00:29:31.721 --> 00:29:34.764
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.

00:29:34.864 --> 00:29:38.042
그렇게 되자 한반도 문제를 UN 소총회에서

00:29:38.142 --> 00:29:40.464
야, 그러면 너희 남과 북이 있는데

00:29:40.564 --> 00:29:43.167
가능한 지역만이라도 먼저 선거해, 라고 하고

00:29:43.267 --> 00:29:47.613
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를 결정합니다.

00:29:47.713 --> 00:29:53.652
이러한 5.10 총선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죠.

00:29:53.752 --> 00:29:56.584
우리나라 민족 역사상 최초의 선거이고 그렇잖아요?

00:29:56.684 --> 00:30:01.881
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있게 되면 남한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고

00:30:01.981 --> 00:30:04.522
기다렸다는 듯이 북에서도 정부가 들어설 거거든요.

00:30:04.622 --> 00:30:06.168
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?

00:30:06.268 --> 00:30:10.603
당연히 분단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거부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.

00:30:10.703 --> 00:30:13.974

대표적인 게 제주 4.3
사건 같은 게 있었어요.

00:30:14.074 --> 00:30:17.142
무엇보다 김구,
김규식 선생님 같은 분들은

00:30:17.242 --> 00:30:19.378
5.10 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.

00:30:19.478 --> 00:30:22.932
자신들의 그러한 정통성을
지켰었던 것이죠.

00:30:23.032 --> 00:30:27.848
그런 상황이 오게 되자 마음이
급해지신 분이 있었습니다.

00:30:27.948 --> 00:30:29.538
누굽니까?

00:30:29.638 --> 00:30:30.830
김구, 김규식 선생님이예요.

00:30:30.930 --> 00:30:34.262
이러다 진짜 우리 분단이다,
이건 독립이 아니야!

00:30:34.362 --> 00:30:35.740
어떻게 나라가 분단될 수 있어?

00:30:35.840 --> 00:30:40.227
지금 분단되면 10년, 20년이 지나도
다시 합치기가 힘들어질 수 있어.

00:30:40.327 --> 00:30:43.034
이건 안 돼! 라고 하셔서
너무나 급한 마음에

00:30:43.134 --> 00:30:46.901
김구와 김규식 선생님이
북으로 올라가십니다.

00:30:47.001 --> 00:30:51.564
이때 김구 선생님의 나이가 이미
70이 넘으신 분이었어요.

00:30:51.664 --> 00:30:54.327
당시 김일성은 30대 중반입니다.

00:30:54.427 --> 00:30:57.394
아들뻘도 되지 않아요,
그 당시에는.

00:30:57.494 --> 00:30:59.687
그런데 김구 선생님이
올라가려고 하자

00:30:59.787 --> 00:31:02.137
김구 선생님을 따르던
추종자들도 이야기합니다.

00:31:02.237 --> 00:31:04.377
선생님, 모르시겠습니까?

00:31:04.477 --> 00:31:05.960
김일성한테 지금 당하는 거예요.

00:31:06.060 --> 00:31:09.148
정치적으로 이용만
당하고 할 거라고요.

00:31:09.248 --> 00:31:13.058
그거 그렇게도 모르세요?
정치를 수십 년 동안 해오셨는데? 라고 하자

00:31:13.158 --> 00:31:16.016
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시죠.

00:31:16.116 --> 00:31:18.908
내가 그걸 왜 모르겠나,

00:31:19.008 --> 00:31:24.728
이 나이 들어서 아들뻘도 되지
않는 김일성을 만나러 간다는 게

00:31:24.856 --> 00:31:26.359
나 역시 좋을 것 같냐.

00:31:26.459 --> 00:31:31.693
그렇지만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나,
분단을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?

00:31:31.793 --> 00:31:35.388
뭐든지 할 수 있는 건
해야 될 거 아닌가.

00:31:35.488 --> 00:31:39.440
내가 비록 38도선을
베고 쓰러져 죽을지언정

00:31:39.540 --> 00:31:43.887
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해서
나라가 쪼개어지는 것을

00:31:43.987 --> 00:31:45.664
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

00:31:45.764 --> 00:31:48.009
일신의 구차한 안일,
이건 말이 좀 어렵지만

00:31:48.109 --> 00:31:51.503
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
내가 그걸 막아야 되겠냐?

00:31:51.603 --> 00:31:55.493
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시
대통령 0순위가 누구였습니까?

00:31:55.593 --> 00:31:58.559
대한민국 임시 정부의

주석 김구 선생님이죠.

00:31:58.659 --> 00:32:01.673

그냥 조금만 기다리고
참았으면 대통령이 돼요.

00:32:01.773 --> 00:32:04.609

그런데 그는 그 모든
것을 거부합니다.

00:32:04.709 --> 00:32:09.827

그리고 나의 마지막 독립운동을 할 수
있는 길을 열어주소, 라고 하고

00:32:09.927 --> 00:32:11.134

북으로 올라가시죠.

00:32:11.234 --> 00:32:14.811

그러고 나서 당시에 북에 있었던
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요.

00:32:14.911 --> 00:32:17.213

이걸 그래서
사자 연석 회담이라고 해서

00:32:17.313 --> 00:32:19.211

희한하게 다 감 씨예요.

00:32:19.311 --> 00:32:22.802

그런데 별다른 성과 없이
내려오시게 됩니다.

00:32:22.902 --> 00:32:27.226

그러고 나서 5월에
5.10 총선거가 실시되고요.

00:32:27.326 --> 00:32:31.642

이거는 여러분,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
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어요.

00:32:31.742 --> 00:32:36.015

임기 2년의 국회의원을 뽑는데
이들이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

00:32:36.115 --> 00:32:39.494

이 국회의원들을 제헌국회
의원들이라고 합니다.

00:32:39.594 --> 00:32:41.647

당시에 열렸던 국회를
제헌국회라고 하고요.

00:32:41.747 --> 00:32:45.401

여기에서 임기 2년의
국회의원들이 뽑히게 되고

00:32:45.501 --> 00:32:51.379

그들 간의 선거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으로
이승만이 선출되었던 것입니다.

00:32:51.479 --> 00:32:55.856

그리고 나서 7월에 헌법을 만들고,
제헌절이 7월 17일이죠?

00:32:55.956 --> 00:32:58.254
그리고 나서 만 3년만입니다.

00:32:58.354 --> 00:33:03.800
1948년 8월 15일,
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.

00:33:03.900 --> 00:33:08.789
이 정부에서는 그 이후 바라던
농지개혁이나 반민족 행위 처벌법.

00:33:08.889 --> 00:33:11.320
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었죠.

00:33:11.420 --> 00:33:18.374
이게 바로 남북 협상을 위해
북으로 가는 김구 선생님이 나와 계십니다.

00:33:21.660 --> 00:33:24.597
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.

00:33:24.697 --> 00:33:27.266
이거 한번 볼까요?

00:33:27.366 --> 00:33:29.805
한국이 있어야 무슨 단체도
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.

00:33:29.905 --> 00:33:32.809
자주 독립적 통일 정부를
수립하려는 이때에

00:33:32.909 --> 00:33:35.394
어찌 개인이나 집단의
사리사욕을 탐하여

00:33:35.494 --> 00:33:38.330
국가 민족의 백년대계를
그르칠 수 있으랴?

00:33:38.430 --> 00:33:43.629
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
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

00:33:43.729 --> 00:33:45.096
일신에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

00:33:45.196 --> 00:33:49.309
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
협력하지 아니하겠다.

00:33:49.962 --> 00:33:52.575
그는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.

00:33:52.675 --> 00:33:57.236
젊었을 때는 김창, 김창수,
김창희 등으로 살았지만

00:33:57.336 --> 00:34:00.454

말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
살아가기 원했었던

00:34:00.554 --> 00:34:03.053

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러한 노력은

00:34:03.153 --> 00:34:06.358

지금 그분이 돌아가신 지
60년이 지났지만

00:34:06.458 --> 00:34:10.403

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
게 아닌가 싶습니다.

00:34:10.503 --> 00:34:13.156

그래서 이게 대비돼서 시험
문제에 많이 나와요.

00:34:13.256 --> 00:34:15.723

46년 6월 3일에
이승만의 정읍 발언.

00:34:15.872 --> 00:34:18.171

이건 단독정부를 최초로
인정한 것이라고 했죠?

00:34:18.271 --> 00:34:23.252

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
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

00:34:23.352 --> 00:34:26.537

통일 정부를 고대하나
여의케 되지 않으니

00:34:26.637 --> 00:34:31.170

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 정부,
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

00:34:31.270 --> 00:34:36.167

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
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

00:34:36.267 --> 00:34:38.117

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.

00:34:38.217 --> 00:34:40.476

남한 단독정부 세우자, 라고 했더니

00:34:40.576 --> 00:34:42.905

김구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자,

00:34:43.045 --> 00:34:46.685

38 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
일신에 구차한 안일.

00:34:46.785 --> 00:34:49.383

일신에 구차한 안일이 바로
대통령 자리라고 했었죠?

00:34:49.483 --> 00:34:53.293

이분은 참 위대한
인물인 것 같습니다.

00:34:53.393 --> 00:34:57.427
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?

00:34:57.921 --> 00:35:00.653
1946년 6월에 이승만의
정음 발언이 있었어요.

00:35:00.753 --> 00:35:02.548
46년 7월에 좌우 합작 위원회.

00:35:02.682 --> 00:35:05.192
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
분단될 것 같으니까

00:35:05.292 --> 00:35:07.441
좌우 합작 위원회가
조직이 되었어요.

00:35:07.541 --> 00:35:09.893
이 좌우 합작 위원회가
실패로 끝나게 되자

00:35:09.993 --> 00:35:13.155
유엔의 총선거 실시가 결정되었어요.

00:35:13.255 --> 00:35:14.936
그러니까 남북 협상 나왔어요.

00:35:15.036 --> 00:35:17.932
그렇지만 안타깝게도 5.10
총선이 나오게 되고

00:35:18.032 --> 00:35:20.894
그것으로 인해서 헌법 공포되고
대한민국 정부 수립.

00:35:20.994 --> 00:35:23.069
그다음에 유엔 총회의 승인까지

00:35:23.169 --> 00:35:26.907
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는
거 기억해두셨으면 좋겠어요.

00:35:27.007 --> 00:35:32.437
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
임시정부에 제헌국회가 들어섰습니다.

00:35:32.537 --> 00:35:36.793
당시 제헌국회한테 사람들이
기대했던 건 크게 두 개였어요.

00:35:36.949 --> 00:35:42.277
일단은 이 친일파 놈들 빨리
처벌해야지, 라고 하게 되는 반민법.

00:35:42.377 --> 00:35:44.113
반민족행위 처벌법.

00:35:44.213 --> 00:35:47.496

그다음에 농지개혁,
이걸 주장합니다.

00:35:47.596 --> 00:35:49.659

첫 번째, 반민법입니다.

00:35:49.759 --> 00:35:53.189

이 반민법은 말 그대로
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이에요.

00:35:53.289 --> 00:35:54.802

그래서 이 처벌을 하려면

00:35:54.902 --> 00:35:57.972

누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
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

00:35:58.072 --> 00:35:59.736

그래서 조사를 만듭니다.
이거 뭐예요?

00:35:59.836 --> 00:36:02.907

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입니다.

00:36:03.007 --> 00:36:06.017

이걸 우리가 흔히
반민특위라고 하죠.

00:36:06.117 --> 00:36:09.335

조사로 당시 제일 먼저
잡혀들어왔던 사람이

00:36:09.435 --> 00:36:12.213

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최고의
부자로 알려져 있었던

00:36:12.313 --> 00:36:15.789

화신백화점 사장 박흥식.

00:36:15.889 --> 00:36:19.228

그다음에 친일 문학인의
대표적인 인물 이광수.

00:36:20.156 --> 00:36:21.403

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서

00:36:21.503 --> 00:36:24.525

우리도 진짜 친일파를 처벌하나보다,
라는 생각을 했는데

00:36:24.625 --> 00:36:29.188

여러분,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보시면
그런 장면들 되게 잘 나오죠?

00:36:29.288 --> 00:36:31.758

경찰인 이정재가 나이 들어서.

00:36:31.858 --> 00:36:37.496

당시에 우리나라 경찰이 대부분이
다 고위 경찰들이었고요.

00:36:37.596 --> 00:36:42.298

70% 이상이 친일 경찰에
해당되었다라고 합니다.

00:36:42.398 --> 00:36:44.583

그러면서 재판이 열리자
뭐라고 그래요?

00:36:44.683 --> 00:36:47.642

야, 매국노야! 하며
사람들이 뭐라고 하자

00:36:47.742 --> 00:36:52.194

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이정재가
재판장이 있는데도 옷을 벗잖아요.

00:36:52.294 --> 00:36:54.266

내 몸에 총알이 6발이 있어요.

00:36:54.366 --> 00:36:59.747

하바롭스크에서 일천구백십이년
여기는 구멍이 두 개지요.

00:36:59.869 --> 00:37:00.965

이러면서 하잖아요.

00:37:01.065 --> 00:37:06.371

옷을 벗는데 보니까 나도
그걸 보면서 빠져들어.

00:37:06.471 --> 00:37:07.854

정말 그랬겠구나.

00:37:07.954 --> 00:37:11.346

그때는 여러분, 그렇게
주장했던 사람이 너무 많아요.

00:37:11.446 --> 00:37:13.897

특히 이 경찰 간부들.

00:37:13.997 --> 00:37:18.614

거기서 이정재는 약간의 가상의
인물이지만 노덕술이라는 사람.

00:37:18.714 --> 00:37:25.339

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
가장 악덕하게 고문했었던

00:37:25.439 --> 00:37:29.227

바로 그 인물이 노덕술 아닙니까?
쓰레기죠.

00:37:29.327 --> 00:37:35.404

이 노덕술이 잡혀들어가자 당시에
우리나라 경찰이 흔들리게 됩니다.

00:37:35.504 --> 00:37:37.541

그래서 어떻게 되죠?

00:37:37.641 --> 00:37:41.040

당시에 경찰들이 반민특위
사무실을 습격해요.

00:37:41.140 --> 00:37:42.963
그래서 자료들을 불태우고

00:37:43.063 --> 00:37:46.177
당시 이 반민특위를 국회의원들
10명이 조사하고 있었거든요.

00:37:46.277 --> 00:37:49.425
무릎 꿇리고 협박하고
폭행하고 그랬습니다.

00:37:49.525 --> 00:37:55.141
그렇게 됐는데도 당시에 이
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집니다.

00:37:55.241 --> 00:37:58.744
친일파 처벌보다 반공을
우선시했던 정부는

00:37:58.844 --> 00:38:02.184
이런 반민특위에 대해서 그렇게
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.

00:38:02.284 --> 00:38:05.392
그리고 무엇보다 경찰이
반민특위사무실을 습격했었고요.

00:38:05.492 --> 00:38:09.095
공소시효도 원래는 2년이었던
1년으로 줄여요.

00:38:09.195 --> 00:38:17.772
그래서 정말로 안타깝게도, 후세에
부끄럽게도 큰 성과 없이 해체됩니다.

00:38:17.872 --> 00:38:20.311
친일파 처벌이 좌절되면서

00:38:20.411 --> 00:38:24.705
지금까지도 친일파의 자손들은
평평거리며 잘 살고

00:38:24.805 --> 00:38:29.431
독립운동의 후손가들은 여전히
힘들다는 말들이 이어지게 되면서

00:38:29.531 --> 00:38:31.622
우리나라 민족정기를
세우지 못했던 거.

00:38:31.722 --> 00:38:34.462
저는 여러분, 그렇게 봅니다.

00:38:34.562 --> 00:38:36.918
요새도 보면 친일파 자손들이

00:38:37.018 --> 00:38:42.870
빼앗긴 재산 환수해달라고

소송 걸고 하잖아요.

00:38:42.970 --> 00:38:45.161

어떻게 저는 그런
생각을 하고 있는지

00:38:45.261 --> 00:38:46.780

법적 체제가 중요합니다.

00:38:46.880 --> 00:38:48.605

우리나라 법치국가고 중요해요.

00:38:48.705 --> 00:38:54.493

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행위가
확실한 사람들은

00:38:54.593 --> 00:38:57.052

남아있는 시간 중에서는 지금이
제일 빠른 시간이니까

00:38:57.152 --> 00:39:00.214

지금이라도 전 처벌을
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

00:39:00.314 --> 00:39:02.140

그리고 처벌까지는 아니더라도.

00:39:02.240 --> 00:39:04.352

왜냐하면, 이 당시에 친일파들은
다 죽었을 테니까.

00:39:04.452 --> 00:39:07.618

그들이 남겨줬던 재산은
환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

00:39:07.797 --> 00:39:12.540

저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
그 돈을 국가 기금으로 만들든가 해서.

00:39:12.640 --> 00:39:16.030

특히 무엇보다 독립운동가들
자손인데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시는

00:39:16.130 --> 00:39:18.492

3세, 4세도 너무나 많으시거든요.

00:39:18.592 --> 00:39:22.924

국가 보훈처에서 특별히 관리해서
그분들에 대해서 만들어놓는 게

00:39:23.024 --> 00:39:25.771

우리나라 민족정기 살리는 것도
당연히 맞지 않을까.

00:39:25.871 --> 00:39:28.719

물론 이게 법치국가에서는
상당히 힘들대요.

00:39:28.819 --> 00:39:34.378

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6000명이나
그 자리에서 총살했다는데

00:39:34.478 --> 00:39:37.741

우리나라는 이걸로 처벌한
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.

00:39:37.841 --> 00:39:39.634
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?

00:39:39.734 --> 00:39:41.297
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.

00:39:41.397 --> 00:39:42.488
그다음에 농지개혁입니다.

00:39:42.588 --> 00:39:45.644
농지개혁이 뭐냐면 북한은
당시에 사회주의 체제잖아요.

00:39:45.744 --> 00:39:52.798
그래서 46년경에 이미 소련
군부에서 지주들의 땅을 몰수해요.

00:39:52.898 --> 00:39:56.494
무상몰수하고 농민들한테
무상으로 분배해줘요.

00:39:56.594 --> 00:39:58.130
그것은 5정보.

00:39:58.230 --> 00:40:00.740
1정보가 3000평 정도 됐답니다.

00:40:00.840 --> 00:40:05.353
이 5정보를 토지개혁으로
나눠줬다고 하는데.

00:40:05.453 --> 00:40:08.910
그러니까 왜 토지냐면 농지에
임야까지 포함된 거예요.

00:40:09.010 --> 00:40:10.899
애네는 농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.

00:40:10.999 --> 00:40:14.295
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자 당시에
우리나라 농민들도 욕을 했겠죠.

00:40:14.395 --> 00:40:19.890
그래서 우리나라도 49년도에
농지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.

00:40:19.990 --> 00:40:22.547
왜 우리나라 농지냐면 임야는 빼요.

00:40:22.647 --> 00:40:24.917
농사를 지을 수 있는
땅만 해당됩니다.

00:40:25.017 --> 00:40:27.483
그래서 유상으로 국가가 매입하고

00:40:27.583 --> 00:40:31.001

농민들한테 유상으로 좀 쌀
가격에 분배해줍니다.

00:40:31.101 --> 00:40:34.949

그래서 크기는 한 사람이
3정보를 넘을 수 없었고요.

00:40:35.049 --> 00:40:39.490

이것을 농지개혁이라고 하는데
이 남한의 농지개혁 의의는

00:40:39.590 --> 00:40:42.695

우리나라에서 지주계급이
소멸했습니다.

00:40:42.795 --> 00:40:44.183

그렇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.

00:40:44.283 --> 00:40:46.386

이 소문을 미리 알고
있었던 지주들은

00:40:46.486 --> 00:40:51.018

미리 토지를 처분하기도
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

00:40:51.118 --> 00:40:56.716

이 지주 계급이 자본가
계급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는

00:40:56.816 --> 00:40:58.004

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거.

00:40:58.104 --> 00:40:59.868

이게 바로 농지개혁이었습니다.

00:40:59.968 --> 00:41:01.084

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

00:41:01.184 --> 00:41:02.692

이게 농지 개혁법이에요.

00:41:02.792 --> 00:41:05.547

제5조, 정부는 다음에
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.

00:41:05.682 --> 00:41:10.291

2.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
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.

00:41:10.391 --> 00:41:13.176

(가) 농가 아닌 자의 농지

00:41:13.276 --> 00:41:16.204

(나) 자경, 자경이라는 게 스스로
농사를 짓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.

00:41:16.304 --> 00:41:18.017

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

00:41:18.117 --> 00:41:21.702

(다) 본법 규정 한도를 초과하는
부분의 농지 등에 대해서는

00:41:21.802 --> 00:41:28.083

다 국가가 매수한 다음에 다시
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고요.

00:41:28.183 --> 00:41:31.405

반민족 행위 처벌법
한번 보시겠습니다.

00:41:31.505 --> 00:41:37.054

제1조,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
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,

00:41:37.154 --> 00:41:40.733

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
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

00:41:40.833 --> 00:41:43.493

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
무기 징역에 처하고

00:41:43.593 --> 00:41:47.764

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
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.

00:41:47.864 --> 00:41:50.323

이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

00:41:50.423 --> 00:41:54.456

제2조,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
그 가족을 살상 박해한 자

00:41:54.588 --> 00:41:58.719

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, 무기
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

00:41:58.819 --> 00:42:02.164

그 재산의 전부 혹은
일부를 몰수한다.

00:42:02.264 --> 00:42:04.573

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

00:42:04.673 --> 00:42:08.357

이게 참 별 다른 성과 없이 끝나게
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.

00:42:08.526 --> 00:42:12.562

농지 개혁 실시 전후의 소작
면적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.

00:42:12.662 --> 00:42:15.323

농지 면적은 얼추 비슷해지게 되는데

00:42:15.423 --> 00:42:18.028

이렇게 쭉 올라가는
이게 자작지입니다.

00:42:18.128 --> 00:42:23.453

자작지가 뭐죠? 스스로 농사
짓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

00:42:23.553 --> 00:42:26.159

그래서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
걸 소작이라고 하죠?

00:42:26.259 --> 00:42:33.536

자작지는 늘고 소작지는 줄어드는
것에 배경이 되는 게 뭐다?

00:42:33.636 --> 00:42:40.644

바로 49년 농지개혁에 있었다,
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.

00:42:40.744 --> 00:42:45.000

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아픈 전쟁,

00:42:45.135 --> 00:42:47.664

6.25 전쟁으로 한번
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42:47.764 --> 00:42:51.246

여러분, 제가 지지난 강의 때
말씀드렸는데요.

00:42:51.346 --> 00:42:53.989

중국 관내 최초의 우리나라
정규부대가 있었다고 했었죠?

00:42:54.089 --> 00:42:56.722

조선의용대라고 합니다.

00:42:56.822 --> 00:43:01.582

이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으로
가서 남한의 국군으로 왔었고요.

00:43:01.682 --> 00:43:04.764

또 조선의용대가 갈려져서 북으로
올라가서 예난 지역에서

00:43:04.864 --> 00:43:10.390

조선의용군이 됐는데 이게 북한으로
들어와서 북한의 인민군이 돼요.

00:43:10.490 --> 00:43:11.723

이들끼리 싸웠던 전쟁.

00:43:11.823 --> 00:43:14.425

즉 하나에서 시작돼서
둘로 나뉘었지만

00:43:14.525 --> 00:43:19.167

또 그들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던
것이 바로 6.25전쟁이다.

00:43:19.267 --> 00:43:24.127

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저자
역사 저술가인 류성완은

00:43:24.227 --> 00:43:30.373
그 전쟁을 세계에서
가장 아픈 전쟁이다, 라고 합니다.

00:43:30.473 --> 00:43:31.933
가볼게요, 6.25 전쟁입니다.

00:43:32.033 --> 00:43:36.348
배경은 일단 중국이 1949년
10월에 공산화가 됩니다.

00:43:36.448 --> 00:43:43.741
그래서 예난 지역에서
국공내전에 싸웠었던 조선의용군이

00:43:43.841 --> 00:43:46.346
이제는 북한으로
들어와서 인민군이 되었고요.

00:43:46.446 --> 00:43:50.708
미군과 소련이 북한과
남한에서 철군했구요.

00:43:50.808 --> 00:43:53.368
그다음에 애치슨 선언이
이어졌습니다.

00:43:53.500 --> 00:43:57.544
애치슨 선언이 뭐냐면 당시에
국무장관이 애치슨이었는데요.

00:43:57.644 --> 00:44:02.409
미국이 유사시에 그들의
군사력을 동원해서

00:44:02.559 --> 00:44:04.992
방어할 수 있는 라인을 설정했어요.

00:44:05.092 --> 00:44:11.735
이게 1950년 초인데 이때 미국
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이 빠집니다.

00:44:11.835 --> 00:44:14.859
그렇게 되면서 약간 북을
자극한 측면도 있었죠.

00:44:14.959 --> 00:44:17.176
전쟁을 우리가 일으켜도 미국이
좀 늦게 참전하려나?

00:44:17.301 --> 00:44:19.535
이런 분위기를 주었던 것이고요.

00:44:19.635 --> 00:44:25.654
그러고 나서 1950년 6월
25일 새벽 4시경을 기해서

00:44:25.754 --> 00:44:28.890
북한은 남침을 해오게 됩니다.

00:44:28.990 --> 00:44:32.088

이 순서가 중요한데요.

00:44:32.188 --> 00:44:33.528
여기에서 북한이 남침하면서

00:44:33.628 --> 00:44:39.752
불과 한 달, 두 달 만에 여기만
빼놓고 전부 다 북한군한테.

00:44:39.852 --> 00:44:41.916
수도가 일단 3일
만에 빼앗기니까요.

00:44:42.016 --> 00:44:45.081
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혀 전쟁
준비가 안 되어있던 상태였었죠?

00:44:45.181 --> 00:44:48.637
그래서 여기에서 빵 전쟁이
시작하자마자 쪽 오고

00:44:48.737 --> 00:44:50.383
이 낙동강 방어선만 남아있었어요.

00:44:50.483 --> 00:44:53.292
여기까지가 1번입니다.

00:44:53.392 --> 00:44:55.431
이 상태에서 위기에 처했었던

00:44:55.531 --> 00:45:01.099
우리나라를 구해줬던 게 바로 그
유명한 인천상륙작전입니다.

00:45:01.199 --> 00:45:06.144
1950년 9월 15일에 인천을
상륙해서 이 지역을 다 장악하고요.

00:45:06.244 --> 00:45:07.881
그러고 나서 어디로 올라갑니까?

00:45:07.981 --> 00:45:09.847
북으로 전진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

00:45:09.947 --> 00:45:12.785
이 장면이 가장 극명하게
잘 나와 있는 건

00:45:12.885 --> 00:45:15.903
옛날 영화이긴 한데 여러분이
좋아하시는 원빈 씨,

00:45:16.003 --> 00:45:18.678
장동건 씨의 주연 태극기
휘날리며를 보시면

00:45:18.778 --> 00:45:20.689
이 과정이 되게 자세하게
잘 나와 있어요.

00:45:20.789 --> 00:45:22.010

쪽 올라갑니다.

00:45:22.110 --> 00:45:24.095

태극기 꽂으면 딱
끝나는 분위기였어요.

00:45:24.195 --> 00:45:26.215
그런데 이때 그동안 전쟁에 대해서

00:45:26.315 --> 00:45:31.009
살짝 소극적인 자세에 취했었던
중국군이 참전하게 됩니다.

00:45:31.109 --> 00:45:33.375
그러면서 다시 밀려요.

00:45:33.475 --> 00:45:35.287
그래서 우리나라가
서울을 또 뺏겨요.

00:45:35.387 --> 00:45:37.648
그래서 평택, 오산
라인까지 밀렸다가

00:45:37.748 --> 00:45:42.471
다시 열심히 노력해서 38도선
라인까지 고착됩니다.

00:45:42.571 --> 00:45:43.808
이 순서가 중요합니다.

00:45:43.908 --> 00:45:46.637
여기서 빵 시작해서 바로 밀렸다가

00:45:46.737 --> 00:45:49.555
인천상륙작전 이후 쪽
북으로 밀어 올리다가

00:45:49.655 --> 00:45:53.314
중국군이 참전하면서 다시 서울
빼앗겼다가 다시 기존에 있었던,

00:45:53.414 --> 00:45:55.209
1년 전의 상태로 돌아왔던 거.

00:45:55.349 --> 00:45:58.288
여기까지가 정확히
1년 정도가 걸려요.

00:45:58.388 --> 00:46:00.802
그런데 선생님, 전쟁이
3년이라고 했었잖아요.

00:46:00.902 --> 00:46:07.640
나머지 2년은 여기 휴전선에서
하나 빼앗겼다가 다시 차지했다가

00:46:07.740 --> 00:46:08.706
빼앗겼다, 차지했다.

00:46:08.806 --> 00:46:12.545

이걸 계속 반복하는 소모전
형태로 바뀌게 됩니다.

00:46:12.645 --> 00:46:14.180
이때부터 휴전 논의가 있게 되죠.

00:46:14.280 --> 00:46:16.762
여기에서는 고지전이라는
영화가 있는데요.

00:46:16.862 --> 00:46:21.872
그 영화 한번 꼭 보시길
제가 추천합니다.

00:46:21.972 --> 00:46:23.621
휴전 논의가 되었었는데 난항입니다.

00:46:23.721 --> 00:46:25.286
일단은 휴전선은 어디로 할 것이냐,

00:46:25.425 --> 00:46:28.337
그때마다 휴전선이 바뀌니까.

00:46:28.437 --> 00:46:30.670
그다음에 포로교환 방식이
문제가 있었어요.

00:46:30.834 --> 00:46:33.542
당시에 포로 중에 문제는 뭐냐면

00:46:33.642 --> 00:46:37.714
여러분, 6.25 전쟁이 참 안타까운
게 뭐냐면 서로 다 말이 통하죠?

00:46:37.814 --> 00:46:39.398
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?

00:46:39.498 --> 00:46:41.476
말이 통하는 사람 싸서
죽여야 되는 거잖아요.

00:46:41.576 --> 00:46:44.256
그리고 거기에다 더 큰
문제는 뭐가 있었냐면

00:46:44.356 --> 00:46:45.360
인민군이 쪽 내려오는데

00:46:45.460 --> 00:46:50.275
예를 들어 충청도에 어떤
류성완이라는 애가 있었어요.

00:46:50.375 --> 00:46:52.401
와서 북한 사람들이 다 죽였을까요?

00:46:52.501 --> 00:46:53.608
아닙니다.

00:46:53.708 --> 00:46:58.632
뭐라고 하나면 내래 동무를 해방시켜주기
위해서 북에서 내려왔어요.

00:46:58.732 --> 00:46:59.917
이렇게 되는 거예요.

00:47:00.017 --> 00:47:02.985
우리 같이 인민혁명을 완성합시다.

00:47:03.085 --> 00:47:04.559
총 던져주는 것이죠.

00:47:04.659 --> 00:47:05.502
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?

00:47:05.602 --> 00:47:08.039
나는 사회주의 한 번도
들어본 적도 없고

00:47:08.139 --> 00:47:10.902
공산당이 뭔지도 모르는데
갑자기 뭐가 되는 거야?

00:47:11.002 --> 00:47:12.546
북한의 인민군이 된 거예요.

00:47:12.646 --> 00:47:14.046
그거 거부했다가는
죽을 것 같으니까.

00:47:14.146 --> 00:47:17.388
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싸우다
보니까 국군한테 잡혔어.

00:47:17.488 --> 00:47:22.132
그러니까 나는 충청도에서
한 번도 떠나보지도 않은 사람인데

00:47:22.232 --> 00:47:25.105
우리나라 국군한테 잡힌
포로가 된 것이죠.

00:47:25.205 --> 00:47:28.283
그러니까 그런 포로들을
뭐라고 하나면

00:47:28.383 --> 00:47:31.605
우리 남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
잡힌 사람들한테 자유 송환이다.

00:47:31.705 --> 00:47:34.869
그 사람한테 맡겨라, 북으로 갈지
남한에 남을 건지 물어봐라.

00:47:35.020 --> 00:47:37.433
그 사람은 북에 아는
사람 한 명도 없어.

00:47:37.533 --> 00:47:39.970
충청도가 고향이여,
이렇게 나오는 것이죠.

00:47:40.070 --> 00:47:41.850

그에 비해서 북은 무슨 소리야?

00:47:41.950 --> 00:47:43.843

우리 인민군 소속으로
있다 잡혔잖아?

00:47:43.943 --> 00:47:48.465

당연히 자동적으로 북으로
와야지,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.

00:47:48.565 --> 00:47:51.543

이게 포로 교환방식을 놓고
끊임없이 대립하게 돼요.

00:47:51.643 --> 00:47:54.417

그리고 어느 정도
완성이 되어갈 때쯤

00:47:54.517 --> 00:47:57.816

이 휴전 논의에 되게
반대하는 입장에 취했던 게

00:47:57.916 --> 00:48:01.393

당시 이승만 대통령이었거든요.

00:48:01.493 --> 00:48:04.575

그래서 뭔가 완성되려고
하자 불만을 품고요.

00:48:04.675 --> 00:48:09.841

당시 거제도에 있었던 포로들을
고의로 석방해버립니다.

00:48:09.941 --> 00:48:13.575

반공포로 석방해버리면서 이게
또다시 난항을 겪게 돼요.

00:48:13.675 --> 00:48:16.881

그래서 미국이
너, 그러지 마, 알았어.

00:48:17.003 --> 00:48:19.309

이제 더 이상 전쟁하는 건 무의미해.

00:48:19.409 --> 00:48:23.107

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 맺자.

00:48:23.207 --> 00:48:24.686

그러고 나서 미국이

00:48:24.786 --> 00:48:27.229

우리나라를 어느 정도 경제적인
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하죠.

00:48:27.329 --> 00:48:29.959

그다음에 주한 미군 주둔할
것도 약속해주게 되면서

00:48:30.059 --> 00:48:37.629

1953년 7월경에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는
이 분위기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48:37.729 --> 00:48:41.569

이게 6·25전쟁의
전개 과정입니다.

00:48:41.669 --> 00:48:46.231

여기 보시면 한국사 참
힘들게 공부하면서도

00:48:46.331 --> 00:48:47.793

점수 안 나오는 친구들의 특징.

00:48:47.893 --> 00:48:50.442

여기에 있는 날짜 다 외우려고 해.

00:48:50.542 --> 00:48:51.996

하지 마세요, 이 순서가 중요해요.

00:48:52.096 --> 00:48:53.725

여기에 있다가 어떻게
된다고 그랬죠?

00:48:53.825 --> 00:48:57.624

뺑 전쟁 시작되면서 낙동강
방어선까지 밀린다고 했었죠?

00:48:57.724 --> 00:49:00.544

그러다가 인천 상륙 작전 이후로

00:49:00.644 --> 00:49:03.688

쭉 밀어 올려서 여기
라인까지 다 차지했어요.

00:49:03.788 --> 00:49:06.276

그러다가 중국군이 개입하면서
다시 쭉 밀려요.

00:49:06.376 --> 00:49:10.674

이때가 1사 후퇴 때나
그런 게 다 여기죠.

00:49:10.774 --> 00:49:13.739

여기는 국제시장 영화보면
후퇴할 때 그러한 모습들 잘 나오죠?

00:49:13.839 --> 00:49:18.236

쭉 밀렸다가 평택, 오산
라인까지 밀렸다가 다시 차지한.

00:49:18.336 --> 00:49:20.369

여기까지가 딱 1년이고

00:49:20.469 --> 00:49:24.687

그 이후 2년은 소모전에 가까웠었다는
거 기억해두시면 좋겠고요.

00:49:24.787 --> 00:49:26.412

6·25 전쟁의 영향
한번 보겠습니다.

00:49:26.512 --> 00:49:28.753

이건 외울 것도 없죠, 인명손실.

00:49:28.853 --> 00:49:30.682
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고요.

00:49:30.782 --> 00:49:32.080
시설 파괴됐습니다.

00:49:32.180 --> 00:49:34.132
그리고 무엇보다 참
안타까운 건 이산가족.

00:49:34.232 --> 00:49:35.876
아직도 살아계시죠.

00:49:35.976 --> 00:49:42.143
한 일주일만 있다가 올 줄
알았는데 전쟁 이후 60년 넘게

00:49:42.243 --> 00:49:44.355
아직까지 고향을 못 돌아가시는
분들도 여전히 계시고요.

00:49:44.455 --> 00:49:46.020
전쟁고아 문제 많았었고요.

00:49:46.120 --> 00:49:49.921
사실 지금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
건 분단의 고착화입니다.

00:49:50.021 --> 00:49:51.935
이념적인 문제.

00:49:52.035 --> 00:49:55.906
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회주의나
공산주의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

00:49:56.006 --> 00:49:59.119
그런데 그런 생각을
가지고 있다고 해서

00:49:59.219 --> 00:50:04.493
그들을 처벌하거나 죽일 필요성은
당연히 없다고 생각합니다.

00:50:04.593 --> 00:50:07.108
왜 그러냐면 사상의 자유가
있는 것이니까요.

00:50:07.208 --> 00:50:10.977
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70년,
80년대에 제가 이런 말 하잖아요?

00:50:11.077 --> 00:50:13.131
저 잡혀갔어요.

00:50:13.231 --> 00:50:16.135
사회주의 고무 찬양죄,
이런 걸로 해서.

00:50:16.235 --> 00:50:21.647

이게 아무리 상대방을
인정해주고 한다 하더라도

00:50:21.747 --> 00:50:25.641
저 북한군이 우리 부모나
내 형제를 쫓아 죽이는 모습을

00:50:25.741 --> 00:50:29.735
제 눈앞에서 보면 이게
이성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?

00:50:29.835 --> 00:50:30.875
쉽지 않죠.

00:50:30.975 --> 00:50:34.886
그래서 이런 이념적 문제로
인해서 이러한 분단 체제가

00:50:34.986 --> 00:50:37.524
60년 넘게 고착화되어버리면서

00:50:37.624 --> 00:50:39.579
지금도 어떤 친구들은
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

00:50:39.679 --> 00:50:41.000
정말 통일 필요해?

00:50:41.100 --> 00:50:43.818
통일돼서 더 힘든 거 아니야? 라고
주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

00:50:43.918 --> 00:50:45.601
당연히 필요합니다.

00:50:45.701 --> 00:50:49.007
이거 봐봤자
더 나은 상황도 없고요.

00:50:49.107 --> 00:50:51.356
장기적으로, 특히 무엇보다
경제적으로 보더라도

00:50:51.456 --> 00:50:54.608
반드시 통일이 필요하다고
생각합니다.

00:50:54.708 --> 00:50:58.766
근거는 또 여러 개 댈 수 있지만
지금 토론회장은 아니니까.

00:50:58.866 --> 00:51:01.579
전후 정치적 변화가 있었습니다.

00:51:01.679 --> 00:51:04.096
북한은 김일성 독재체제가
강화되었어요.

00:51:04.196 --> 00:51:08.972
그 이후 이승만은 정부에 무리한
개혁으로 인해서 정권이 연장되었죠.

00:51:09.072 --> 00:51:11.265

이건 잠시 뒤에
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

00:51:11.365 --> 00:51:12.707
전후 경제적 변화가 있었습니다.

00:51:12.807 --> 00:51:15.245
전후 복구 사업으로 귀속재산
처리 문제가 있었는데

00:51:15.345 --> 00:51:22.462
귀속재산 처리 문제가 뭐냐면 일본이
남기고 간 재산이 있었죠.

00:51:22.562 --> 00:51:25.705
이런 것을 귀속재산이라고 해요.

00:51:25.805 --> 00:51:33.171
조선총독부가 우리나라에 남겨두고
갔었던 여러 큰 기업들.

00:51:33.271 --> 00:51:34.369
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.

00:51:34.469 --> 00:51:36.811
땅도 있었고 기업들도
있었고 이런 거.

00:51:36.911 --> 00:51:39.877
우리나라 대부분의 대기업이

00:51:39.977 --> 00:51:45.878
이때 이 귀속재산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
성장했던 것들이 있었어요.

00:51:45.978 --> 00:51:48.704
그다음에 미군정이 사실은
원조를 많이 해줬었죠.

00:51:48.804 --> 00:51:52.590
삼백산업이라고 해서 3개의
백색을 가진 것들.

00:51:52.690 --> 00:51:55.463
설탕이라든가 밀이라든가 면화.

00:51:55.563 --> 00:52:01.794
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해주는 모습이
있었다는 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52:01.894 --> 00:52:03.008
여기까지가 전쟁인데요.

00:52:03.108 --> 00:52:05.932
보통 여러분, 6.25 전쟁은
뭐가 더 중요하다? 이 순서.

00:52:06.032 --> 00:52:09.727
여기서 밀렸다가 인천 상륙

작전에서 쪽 올라갔다

00:52:09.827 --> 00:52:12.922

다시 내려왔다가 다시
서울 차지하고까지 1년.

00:52:13.022 --> 00:52:15.756

2년간은 소모전이 있었어요.

00:52:15.856 --> 00:52:18.728

이 과정과 이 영향
당시의 정치적 변화.

00:52:18.828 --> 00:52:21.145

이거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

00:52:21.245 --> 00:52:25.056

이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승만
정부에 대해서 할 텐데

00:52:25.156 --> 00:52:27.768

지금은 전체적인 흐름만
살짝 잡고 갑시다.

00:52:27.868 --> 00:52:32.051

1948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
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했었죠?

00:52:32.151 --> 00:52:40.483

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수립 때
국회의원의 임기가 2년이라고 했었죠?

00:52:40.583 --> 00:52:44.274

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
이때 대통령을 국회의원들이 뽑았는데

00:52:44.374 --> 00:52:49.936

문제는 6.25 전쟁 이전에
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.

00:52:50.036 --> 00:52:53.065

그런데 이때 이승만계가 몰락합니다.

00:52:53.165 --> 00:52:55.455

그러니까 이들이 2년 정도 있다가

00:52:55.555 --> 00:52:59.105

52년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
뽑으면 됐던 거예요.

00:52:59.205 --> 00:53:02.313

그러면 이승만계가 몰락했기 때문에,

00:53:02.413 --> 00:53:04.887

이때 대통령은 4년 중임제였거든요.

00:53:04.987 --> 00:53:07.383

4년 한 다음에 한 번 잘하면
4년 한 번 더하는 거.

00:53:07.483 --> 00:53:10.004

이게 지금의 미국 대통령제랑
거의 비슷해요.

00:53:10.104 --> 00:53:13.274
그렇게 하는 거였는데
52년이 됐으면

00:53:13.374 --> 00:53:16.382
더 이상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
가능성은 거의 0%에 가깝습니다.

00:53:16.482 --> 00:53:20.926
그래서 이승만이 1952년에
헌법을 처음으로 바꿔요.

00:53:21.026 --> 00:53:22.634
이걸 1차 개헌이라고 합니다.

00:53:22.734 --> 00:53:29.027
이걸 발췌해서 바꿨다고
해서 발췌개헌이라고 하는데

00:53:29.127 --> 00:53:30.657
여기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.
뭐예요?

00:53:30.757 --> 00:53:32.526
대통령을 간선제에서.

00:53:32.626 --> 00:53:34.578
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
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

00:53:34.678 --> 00:53:35.872
직선제로 바꾸는 거예요.

00:53:35.972 --> 00:53:37.461
선생님, 이때 직선제로
왜 바꿨을까요?

00:53:37.561 --> 00:53:40.384
여러분이 당시에 정부 고위
관료였다고 생각해 보세요.

00:53:40.484 --> 00:53:42.036
왜 바꿨을까요?

00:53:42.136 --> 00:53:46.380
이때 직선제면 뭐
할 수 있었습니까?

00:53:48.456 --> 00:53:50.300
이때가 전쟁 중이잖아요.

00:53:50.400 --> 00:53:55.086
전쟁 중에는 보통 현직
대통령이 거의 됩니다.

00:53:55.186 --> 00:53:57.841
이게 되게 정치적으로
특이한데 거의 다 그래요.

00:53:57.941 --> 00:53:59.234
현직 대통령이 거의 돼요.

00:53:59.334 --> 00:54:00.225
그래서 바꾼 거예요.

00:54:00.325 --> 00:54:03.888
그리고 무엇보다 이때 간선제도 있으면
본인이 재선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.

00:54:03.988 --> 00:54:08.516
그래서 실제로 52년 선거에서
이때 이승만이 당선을 합니다.

00:54:08.616 --> 00:54:11.280
그러고 나서 그는 아무리
길어봤자 56년까지인데

00:54:11.380 --> 00:54:14.206
54년도에 개헌을 한 번 더해요.

00:54:14.306 --> 00:54:16.142
우리가 이것을 2차
개헌이라고 합니다.

00:54:16.242 --> 00:54:18.754
그런데 2차 개헌은 거의
코미디에 가깝습니다.

00:54:18.854 --> 00:54:20.738
이걸 사사오입 개헌이라고 하는데

00:54:20.838 --> 00:54:23.385
이 당시에 국회의원
정수가 몇 명이었냐면

00:54:23.485 --> 00:54:25.704
재적 의원이 203명입니다.

00:54:25.804 --> 00:54:28.718
여러분, 지금도 우리가
헌법을 바꾸려고 하죠?

00:54:28.861 --> 00:54:31.263
지금 우리도 헌법 바꾸려는
논의가 한참 있잖아요.

00:54:31.363 --> 00:54:34.420
그것을 바꾸려면 일단 최종적으로
국민투표가 있어야 되지만

00:54:34.520 --> 00:54:37.543
국민투표 전에 반드시
뭐가 필요한지 아세요?

00:54:37.643 --> 00:54:41.400
국회의원 재적 의원의 3분의
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.

00:54:41.500 --> 00:54:45.768

지금은 299명이니까 200명
이상의 동의를 필요한 것이죠.

00:54:45.868 --> 00:54:48.789
이때 국회의원 재적은
203명이었습니다.

00:54:48.889 --> 00:54:52.600
그중에 3분의 2 이상이
나오려면 135.333이에요.

00:54:52.700 --> 00:54:55.297
그러면 몇 명 이상이어야 됩니까?

00:54:55.397 --> 00:54:57.551
136명이면 되겠죠.

00:54:57.651 --> 00:55:00.968
그런데 이때 여당 국회의원이
136명이었대요.

00:55:01.068 --> 00:55:03.227
그래서 이견 문제 없구먼? 했는데

00:55:03.327 --> 00:55:07.063
한 명이 그 라인을 잘못 읽어서
가운데 찍어버린 거예요.

00:55:07.163 --> 00:55:09.005
한 표가 무효표가 돼요.

00:55:09.105 --> 00:55:10.513
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?

00:55:10.613 --> 00:55:15.531
135.333인데 135의
찬성이 나왔으니까

00:55:15.631 --> 00:55:17.540
이거는 3분의 2 이상이 아니잖아요.

00:55:17.640 --> 00:55:19.572
그래서 부결이 돼요.

00:55:19.672 --> 00:55:20.831
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.

00:55:20.931 --> 00:55:27.642
그런데 그다음 날 서울대
수학과 교수가 찾아갑니다.

00:55:27.742 --> 00:55:32.191
사람의 수로서 자연수로 0.33이라는
숫자는 있을 수 없다.

00:55:32.291 --> 00:55:34.439
그러니까 0.33이라는
숫자를 버려야 된다.

00:55:34.539 --> 00:55:37.340
0.33이라는 숫자를 버리면, 인간을

자를 수 없으니까 버려야 된다.

00:55:37.440 --> 00:55:42.594
그러니까 135이고 135.333에서
0.333을 버리면 여기 135.

00:55:42.694 --> 00:55:45.769
135면 135, 135.
이건 같은 거니까

00:55:45.869 --> 00:55:48.448
이상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해서

00:55:48.548 --> 00:55:52.158
시간이 지나서 그다음 날
모여서 가결을 해버려요.

00:55:52.258 --> 00:55:54.740
선생님, 이게 말이 돼요?
무슨 초등학교 장난도 아니고?

00:55:54.840 --> 00:55:58.498
우리나라 두 번째
개헌이 이렇게 돼요.

00:55:58.598 --> 00:56:00.000
참 거의 코미디에 가깝죠?

00:56:00.100 --> 00:56:02.697
그리고 사실 이 내용도
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.

00:56:02.797 --> 00:56:06.862
뭐라고 하나면 앞으로의 모든 대통령에
대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

00:56:06.962 --> 00:56:11.598
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대통령
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거예요.

00:56:11.698 --> 00:56:15.648
그러니까 당시에 이승만은 살아 있으면
영원히 대통령을 하는 겁니다.

00:56:15.748 --> 00:56:17.464
물론 중간마다 선거가 있었겠지만.

00:56:17.564 --> 00:56:21.613
그래서 56년도에 또
선거에 들어옵니다.

00:56:21.713 --> 00:56:26.764
이때 대선은 대통령과 부통령을
각각 뽑는 형태였습니다.

00:56:26.864 --> 00:56:29.815
당시에 여당이었던
자유당에는 이승만.

00:56:29.915 --> 00:56:31.930
부통령으로는 이기붕이 나왔고요.

00:56:32.030 --> 00:56:33.892
민주당은 신의희, 장면.

00:56:33.992 --> 00:56:35.534
이렇게 대통령과 부통령 나왔고요.

00:56:35.634 --> 00:56:40.918
무소속으로는 혁신주의자였던
조봉암이 나왔었는데요.

00:56:41.018 --> 00:56:44.346
이때 민주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가

00:56:44.446 --> 00:56:46.985
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
캐치프레이즈라고 합니다.

00:56:47.085 --> 00:56:49.545
못 살겠다 갈아보자.

00:56:49.645 --> 00:56:52.307
지난 8년간 정말로 못 살겠었어.

00:56:52.407 --> 00:56:55.125
못 살겠다, 갈아보자! 라고 했더니

00:56:55.225 --> 00:56:56.848
당시 여당에서 뭐라고 했냐면

00:56:56.948 --> 00:57:00.543
못 살겠다, 갈아보자! 라고 하니까
옆에서 갈아봤자 더 못산다!

00:57:00.643 --> 00:57:03.092
못 살겠다, 갈아보자!
갈아봤자 더 못산다!

00:57:03.192 --> 00:57:07.764
이게 약간 초등학교 애들
말싸움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

00:57:07.864 --> 00:57:11.754
그러고 나서 당시
평화 통일 주의자,

00:57:11.854 --> 00:57:16.657
진보 운동을 펼쳤던 조봉암 선생 같은
경우는 혁신만이 살길이다, 라고 하는데

00:57:16.757 --> 00:57:26.242
문제는 신의희 선생이 대통령 유세
중에 열차에서 갑작스럽게 급사하세요.

00:57:26.342 --> 00:57:29.369
그러니까 갑자기 민주당 내에서는

00:57:29.469 --> 00:57:32.486
유력 대권 후보자가
선거에 등록되었던 상태였고

00:57:32.586 --> 00:57:35.550

더 이상 바꿀 수도 없으니까
없는 상태에서 조봉암.

00:57:35.650 --> 00:57:41.266

원래 조봉암과 신익희가 이때 후보
단일화를 하기로 약속했거든요.

00:57:41.366 --> 00:57:46.459

그런데 이때 조봉암이
저 권력을 가져가려고 하니까

00:57:46.559 --> 00:57:48.999

당시 그때 민주당도
문제가 있었어요.

00:57:49.099 --> 00:57:52.211

뭐라고 하나면, 죽은 사람한테
추모 표를 던져달라고 해요.

00:57:52.311 --> 00:57:53.832

이게 역사상 유래가 없는

00:57:53.932 --> 00:57:56.970

죽은 사람한테 투표해달라고
민주당에서 이야기해요.

00:57:57.108 --> 00:58:03.415

그래서 실제로 신익희한테 100만
표가 넘는 표가 날아갑니다.

00:58:03.515 --> 00:58:10.215

그리고 조봉암은 당시에 유효득표에
30% 이상을 득표해요.

00:58:10.315 --> 00:58:12.195

그런데 이때 56년 대선에서도

00:58:12.295 --> 00:58:15.239

이미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
벌어졌다고 합니다.

00:58:15.339 --> 00:58:17.550

당시 외신기자들은 뭐라고 하나면

00:58:17.650 --> 00:58:20.676

이때 자유당인 이승만이 당선 되고

00:58:20.776 --> 00:58:26.431

부통령에서는 민주당인
장면이 당선되거든요.

00:58:26.531 --> 00:58:29.623

당시에 자유당도 민주당한테
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

00:58:29.723 --> 00:58:35.547

민주당도 나, 대통령 선거는
더 이상 컴플레인 안 걸게.

00:58:35.647 --> 00:58:39.086

그래서 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했다가는
큰일 나, 라고 하니까

00:58:39.186 --> 00:58:41.565

당시 자유당 쪽에서도
콜, 이라고 하고

00:58:41.665 --> 00:58:43.796

하다 보니까 부통령은
장면이 됐고요.

00:58:43.896 --> 00:58:47.519

그런데 사실 부통령은 별다른
특권이 거의 없습니다.

00:58:47.619 --> 00:58:49.877

대통령이 유고 시 모든
권한을 부여받지만

00:58:49.977 --> 00:58:53.592

대통령이 살아있으면 별다른 특권이
없던 게 부통령이었고요.

00:58:53.692 --> 00:58:59.319

어쨌든 이승만이 당선되는데 문제는
당시 외신 기자들이 뭐라고 하나면

00:58:59.419 --> 00:59:02.168

투표에서는 조봉암이 이겼으나

00:59:02.268 --> 00:59:05.173

개표에서는 이승만이 이겼다, 라는
표현을 씁니다.

00:59:05.273 --> 00:59:08.377

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
자행되고 있었는데

00:59:08.477 --> 00:59:15.484

사실은 이 조봉암이 누구였냐면
1920년대 사회주의자였거든요.

00:59:15.584 --> 00:59:18.798

그런데 30년대, 40년대
넘어가면서 전향을 선언합니다.

00:59:18.898 --> 00:59:21.653

나 사회주의자, 공산주의자
더 이상 아니다, 라고 하고

00:59:21.753 --> 00:59:25.027

우리가 아까 배웠던
농지개혁을 계획했던 사람이

00:59:25.127 --> 00:59:27.586

바로 이 사회주의자였던
조봉암입니다.

00:59:27.686 --> 00:59:30.784

그러고 나서 초대 국회의원도 했었고

00:59:30.884 --> 00:59:32.492
국회 부의장까지 했었던 사람인데

00:59:32.592 --> 00:59:36.247
그러니까 한때 이승만이랑
같이 있었다가 물러나고

00:59:36.347 --> 00:59:38.398
지금은 완전 반대 세력에 있는데요.

00:59:38.498 --> 00:59:42.387
이때 조봉암이 뭐라고 하나면 통일을
어떻게 해야 돼요, 여러분?

00:59:42.487 --> 00:59:43.642
무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?

00:59:43.742 --> 00:59:45.839
아니면 평화스럽게 우리가
통일해야 됩니까?

00:59:45.939 --> 00:59:47.539
우리는 지금 다 평화통일 아십니까?

00:59:47.639 --> 00:59:49.852
조봉암이 평화통일을 주장했는데

00:59:49.952 --> 00:59:53.968
그게 꼬투리를 잡아서
진보당 사건이라고 해서

00:59:54.068 --> 00:59:57.119
조봉암이 그 이후 진보당을
만드는데 이걸 잡아 들어요.

00:59:57.219 --> 01:00:04.126
그리고 나서 59년도 조봉암을
간첩으로 몰아서 59년에 사형합니다.

01:00:04.226 --> 01:00:06.550
우리가 알고 있는
대표적인 사법살인입니다.

01:00:06.650 --> 01:00:11.869
선생님,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
법적 체제로 사형이 내려진 건데

01:00:11.969 --> 01:00:13.593
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?

01:00:13.693 --> 01:00:17.222
됩니다, 2011년도 이
조봉암의 재선으로 인해서

01:00:17.322 --> 01:00:19.922
조봉암 최종 무죄판결이 나왔고요.

01:00:20.022 --> 01:00:24.041
우리나라 사법 역사상
가장 최악의 판결이

01:00:24.141 --> 01:00:27.598

바로 이 조봉암의
사형 판결이었습니다.

01:00:27.698 --> 01:00:31.359

역시 제 청춘의 완터뷰에 또
한 명의 인물이 조봉암이예요.

01:00:31.459 --> 01:00:34.837

혁신만이 살길이다, 라고 했었고
진보당 사건으로 잡혀들어갔다

01:00:34.937 --> 01:00:38.396

59년도에 조봉암 선생께서는
사형을 당하시게 되고요.

01:00:38.496 --> 01:00:41.557

지금은 그 명예가 회복되었죠.

01:00:41.657 --> 01:00:45.384

더 말씀드릴 게 많은데
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힘드니까

01:00:45.484 --> 01:00:49.000

다음 시간에는 여러분, 여기 6.25
전쟁 살짝 다시 한번 복습하고

01:00:49.100 --> 01:00:53.153

그다음에 1공화국 오면서 이제는
그런 어마어마한 부정 선거 가운데

01:00:53.253 --> 01:00:58.692

1960년의 3.15 부정선거에 의해서
촉발되었던 4.19 혁명부터 해서

01:00:58.792 --> 01:01:01.712

우리나라 현대사 쪽 한번
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1:01:01.812 --> 01:01:02.995

수고 수고 많으셨고요.

01:01:03.095 --> 01:01:04.569

이제 딱 2강 남았습니다.

01:01:04.669 --> 01:01:06.863

마지막까지 완강하자고요.
수고 수고 많으셨고요.

01:01:06.963 --> 01:01:09.565

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

01:01:09.665 --> 01:01:14.271

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~